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 도전과 과제**

- ▶ 일시: 2013년 7월 3일(수) 14:00~17:10
-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 도전과 과제

시 간	구 분	내 용
13:30~14:00	사전 등록	
14:00~14:10	개 회 식	사회자 :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대외협력팀장)
	개 회 사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축 사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4:10~15:50	세션 1	해외 동향과 사례 좌장 :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대외협력팀장)
	주 제	Happiness Index for Child and Youth: Constructing Happy Communities
	발 표	Yoshiaki Takahashi (Research Fellow, JICA Research Institute)
	토 론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 제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발 표	Pamela Wridt (Co-director of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토 론	최순중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50~16:00	휴 식	
16:00~17:00	세션 2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좌장 :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 특별주제발표 "청소년이 말하는 행복"	이정우 강영훈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청소년기자단원) 제9대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주 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연구
	발 표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17:00~17:10	종합토론	
17:10	폐회식	

개회사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원 24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 참석해주신 발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7월 설립된 이후 소속이나 명칭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기초 연구와 정책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국내 유일의 청소년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4년에 걸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성과는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크게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단 9.4%만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프랑스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등에 비하면 심각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청소년마저도 30.1%를 보였다는 사실은 앞의 결과를 단순히 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넘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이자 미래 행복한 삶의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행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우리 사회를 이어가기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청소년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건전하고 밝아야 우리 아동과 청소년이 즐겁고 행복하게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대적 도전을 맞고 있으며, 또한 어떤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제안들을 토대로 청소년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는 본원의 개원 2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만큼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재현 이사장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구본용 원장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전성민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 청소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기까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전·현직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특별주제 발표를 해준 이정우, 강영훈 학생과 귀한 시간 내서 오를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염유식 교수님, 김운테 교수님, 최순중 교수님, 최윤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7월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현

축 사 ■ ■ ■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국제세미나를 준비하신 이재연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님, 세션 별로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은 청소년 전문가와 교수, 청소년 단체 관계자, 그리고 청소년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좋은 대학 가기라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숨 막히는 공부 경쟁에 너무 일찍부터 내몰려 있고, 서열이 매겨지는 중고 학교생활은 상처받는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나 지역 공동체는 든든한 보호와 격려, 지지보다는 사소한 일상에서 조차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하고, 과도한 선행 학습조차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듯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2009년부터 청소년의 자살은 사망원인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더 좋은 등급이 매겨진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위해 자기 절제만을 강조하는 양육 문화와 경쟁적인 선행학습과 사교육으로 인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차단되어 버린 교육 환경, 여가 및 문화 참여조차 따뜻한 인성 개발과 거리가 먼 점수와 과제로 연결 짓는 교육 광풍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인 것 같아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청소년 정책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행복수준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과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과 꿈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기계적이고 지식적인 학습만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체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망에서 청소년 정책이 그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밀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관계 맺음, 갈등 조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자원봉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참여 과정에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찾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유해매체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폭력이나 학대 문제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부모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안전망이 더 단단해 져야 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사회의 역할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 상 희

축 사 ■ ■ ■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입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 원장님과 세미나 준비에 정성을 다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 해외에서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국내 청소년 전문가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시대적 도전과 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 공유를 통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난 24년을 회고해보면, 청소년을 문제시 하던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기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현명한 브레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역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원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청소년기는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혼가정의 증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학업경쟁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리적·현실적 긴장과 압박감에 놓여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더욱 요구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과학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제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현재화 될 중장기 과제들과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거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원 24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목 차

세션1 : 해외 동향과 사례

- Happiness Index for Child and Youth: Constructing Happy Communities 3
 - ▶ Yoshiaki Takahashi (Research Fellow, JICA Research Institute)

-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39
 - ▶ Pamela Wridt (Co-director of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세션2 :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 청소년 특별주제발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은 과연 행복한가요? 93
 - ▶ 이정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제9대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 청소년 특별주제발표: 청소년이 말하는 행복 99
 - ▶ 강영훈 (청소년기자단원)

-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연구 103
 - ▶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 1



해외 동향과 사례

발표



Happiness Index for Child and Youth: Constructing Happy Communities

Yoshiaki Takahashi

(Research Fello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Research Institute)

Yoshiaki Takahashi

타카하시 요시아키 박사는 2011년부터 일본국제협력사업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행복연구(Happiness Studies) 사업을 이끌고 있다. 연구진은 인도, 태국,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타카하시 박사는 부탄왕국종합연구소(Centre for Bhutan Studies)에서 실시하는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조사의 자문이자 OECD 국가의 주관적 웰빙 측정 자문단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내각의 삶의 질 담당부서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하던 2008년 국가생활양식백서를 통해 정부부문에 행복학 연구를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내각 행복연구단장을 맡아 일본의 국가웰빙지표 개발에 기여했다. 타카하시 박사는 영국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과 사우스햄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Happiness Index for Child and Youth: Constructing Happy Communities

I . Introduction

“Are you happy?” This is a fundamental question in our lives. Policy makers now focus on happiness more than ever before. The Bhutanese government developed a happiness index, “Gross National Happiness”, in 2008.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established by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in 2008, mentioned in its report that “[m]easures of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provide key information about people’s quality of life” (Stiglitz, Sen, & Fitoussi, 2009, p. 16). The report inspired political debate about happiness. In 2010, the German National Parliament organized the Study Commission on Grow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which consists of 17 members of parliament and 17 external experts. The basic question they are discussing is how social prosperity, individual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adequately defined and what kind of societies we should develop by taking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focus on the growth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no longer sufficient. In 2011,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launched the Better Life Index and proposed a more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as OECD's Happiness Index in the milestone publication *How's Life?* (OECD, 2011). In November 2011, UK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asked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to develop a happiness index for the UK.

Insights from happiness studies over the last few decades, especially from psychology, economics, and sociology, have affected these political debates. Happiness is now treated

as an important theme in other fields, such as anthropology, political science, and neuroscience. One of the most surprising findings to come from happiness studies is sometimes called the "paradox of happiness": that average happiness does not vary much with income per capita. Broadly speaking, socio-economic conditions (poverty, housing, education, and employment), health, and relatedness are all important factors in defining happiness. Understanding that increases in income above a moderate level do little to improve most of these factors, makes this finding much less paradoxical. Happiness studies also show that Japan is one of the unhappiest countries in the developed world, regardless of the measure used (Helliwell & Wang, 2012). Japan also has one of the highest suicide rates in the world. Suicide is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among males in their 20s to early 40s, and among females in their late teens to early 30s.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are believed to suffer from an excessive amount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y find it difficult to have hope for their future. Although these problems are complex, they are likely to stem, at least in part, from the sacrifice of good family relationships, community ties, and other sources of happiness to economic growth. This raises questions like "does economic growth mean happiness?", and "is GDP synonymous to happiness?" If citizens wish to be happy, it is inevitable that their governments should review national goals and policy objectives.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ultimate goal of government policy, whatever the government of the day, is to promote the nation's wellbeing and not just GDP, the Japanese government has undertaken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and social progress since 1970. The task of measuring wellbeing and social progress raises many issue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wellbeing, measurement methods and frameworks, and the availability of practical ways to measure proposed domains and indicators of wellbeing.

In this presentation, to get some insights for constructing happy communities for child and youth, I'll explain Japan's new index, National well-being indicators as well as some happiness initiatives by local governments in Japan.

II. National Well-being Indicators (Happiness Index) by the Government of Japan

The government of Japan once again intends to develop new social progress indicators, “National Well-being Indicators (Happiness Index)”. In chapter 4 in the New Growth Strategy, which was adopted by the Cabinet in June 2010, it is mentioned that “[w]hat we aim to build is a nation of Sanpo-Yoshi [all right on three sides] where three fundamental factors, that is, economy, environment, and society, work to improve one another and thereby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happiness of citizen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national wellbeing in Japan, the happiness study project started in the Cabinet Office in July 2010.

In December 2010, the Commission for Measuring the Wellbeing of Japan (the “Commission”) was set up as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er for Economic and Fiscal Policy. The Commission had discussed how to frame National Wellbeing Indicators by making the most of research insights in happiness studie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y also conducted new surveys, such as the Longitudinal Happiness Survey of Youth, to explore what kinds of factors are important for Japanese happiness.

As an output of the discussion, the Commission issued a report and proposed Happiness Index at the OECD Asia-Pacific Conference on measuring wellbeing and fostering progress of societies in December 2011 (The Commission, 2011).

We needed the indicators of happiness to provide us with fuller information of how Japan is doing and where we are heading to. Then we have to redefine the objective of the nation to create a healthy society. These happiness indicators are constituted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subjective personal happiness that contribute to overall happiness, and these are a tool to analyze regional differences and changes over time. Creating these indicators is significant because it will shed light on “happiness” and the individuals’ “feeling” in policy discussion. More precisely, indicators of happiness will enable us to:

- 1)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individuals' happiness, and to identify societ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hich may affect the level of happiness. As well as to observe what aspects of society are improving and what aspects of society are deteriorating.
- 2) Provide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obt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where society is heading for a wider discussion, and to give individuals some clues on what are the necessary actions needed to facilitate not only an individuals' happiness but also national happiness.

Also, by comparing Japan with other countries, we can re-evaluate aspects of our own society which are conventional to us, so that we do not consider these things as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to our society. For example, Japanese people generally remain calm and moralistic at a time of crisis, and cities are spotless because people are very unlikely to litter. These are evaluated as advantages to Japanese society which enhance happiness of people.

Additionally, the indicators will help policy makers to evaluate existing policy and prioritize or improve them. As well as to suggest public policy to be initiat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evidence shown by the indicators¹⁾.

(1) Proposed indicators

(a) Three main domains

Regardless which institution tries to propose happiness indicators, whether it is a national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the first course of action is to discuss what constitute to national well-being. It is generally agreed with that subjective well-being is the central indicator for most frameworks, but there are a wide range of opinions of what to include as indicators to contribute

1) In Bhutan, the government stated that indicators determine policies, h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ell-being indicators.

to subjective well-being that reflect the multi-dimensionality and subjectivity of the issue²⁾. To decide what domains to include in these proposed happiness indicators, the National Survey on Lifestyle Preferences (NSLP) was utilized as a reference. The survey comprises of 12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health, family, household budget, mental relaxation, friends, employment, free time, motivation of life, leisure, job satisfaction, working environment, and community environment. The survey conducted in 2009 and 2010 revealed that health, family, household budget, and mental relaxation were factors that have a strong influence on people's happiness.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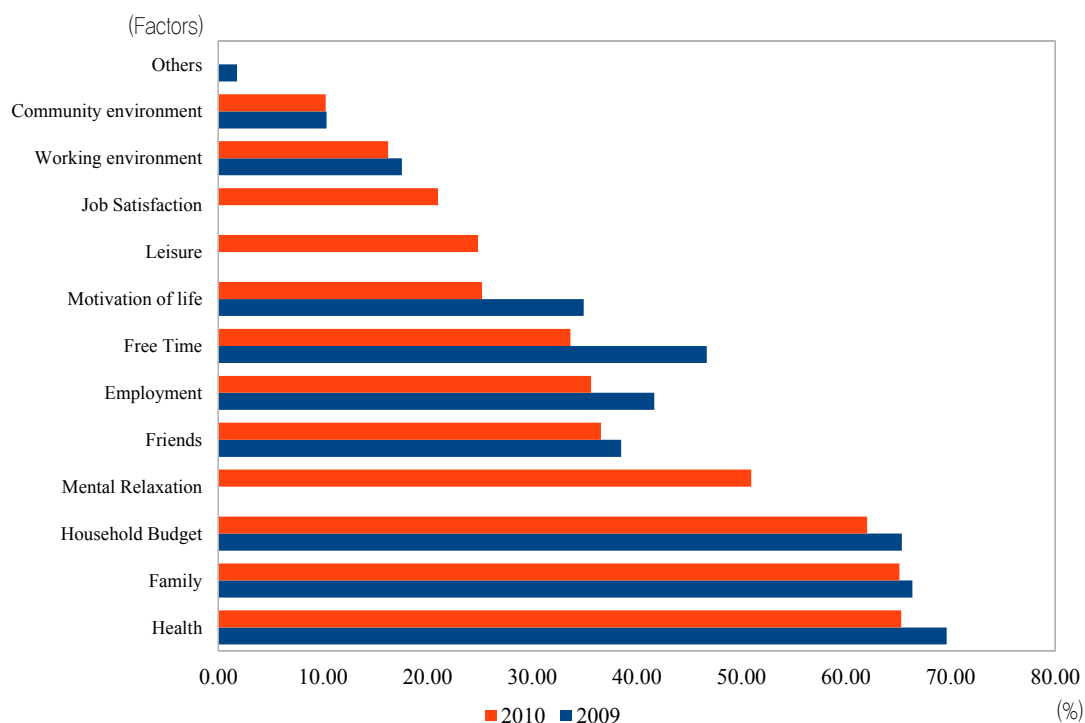


Figure 1: Factors that are considered as important to determine happiness
(Percentage of people who chose each factor as important in relation to happiness)

(Note) Results are from the NSLP 2009 and 2010, and some choices were revised and changed in 2010.

2) For example, th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roposes 3 conceptual pillars: material living conditions,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The Eurostat suggests 6 components of well-being: physiological needs, physical environment, individual valued activities, autonomy and freedom, relatedness-belonging, and competence and self-este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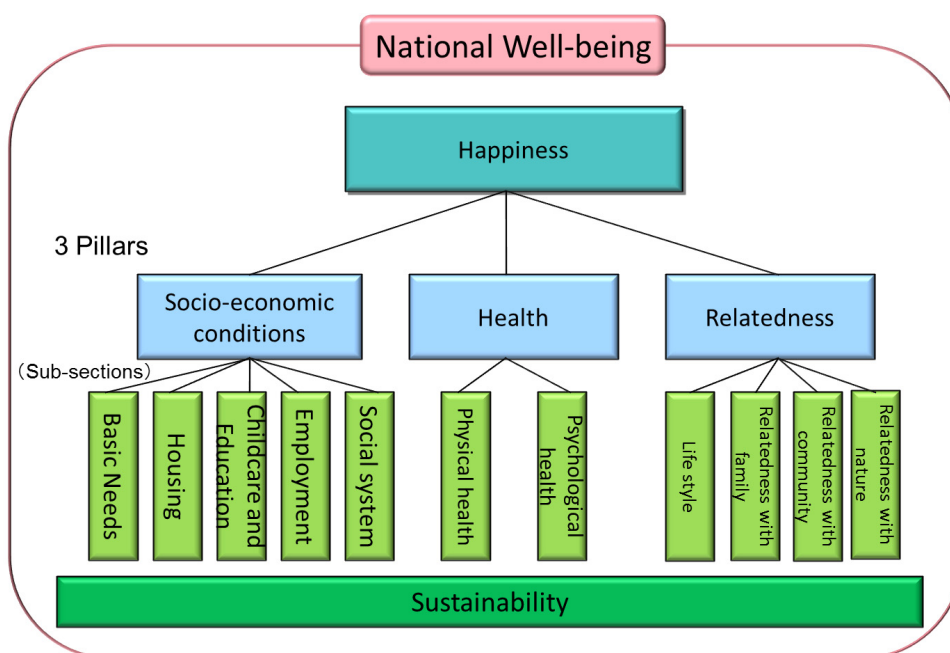


Figure 2: The framework of the proposed National Well-being Indicators

(Note) Figure 4 in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of Japan (2011)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SLP and other international discussions, the report suggests three domains as being the most important. These domains include above mentioned 12 factors as well as other various important factors in order to reach every aspect of people's life that affects happiness. These three domains are: socio-economic conditions, health and relatedness. Each domain contains several indicators.

(b) Life-stage differences

The level of influence of each factor differs among the population according to what stage of their life they are i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ive some consideration to this issue when establishing the framework.

In the case of Japan, for instance, males in their late teens and early 20s list "friend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mental relaxation" as the third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ing their level of happiness (Figure 3). On the other hand, “household budget” or “family” is listed on the top of the list for males in their late 20s to early 50s, but “health” is considered the most for males older than 55. As well as teenage boys, teenager girls also listed “friend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mental relaxation” as the third most important factor. However, as age goes up, different factors became more influential for female. “Family” is listed on the top of the list for females in their early 20s to late 30s. “Health” is considered as the most influential for the females older than 40. No female in any group listed “household budget” on the top of their list while males did so.

Sex	Top 5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Age)
Male	1	Friends	Friends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2	Free Time	Family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Health	Health	Health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Family	
	3	Mental Relaxation	Motivation of life	Employment	Health	Mental Relaxation	Family	Family	Family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4	Family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Health	Mental Relaxation	Employment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5	Motivation of life	Household Budget	Health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Mental Relaxation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Free Time	Free Time	Free Time	
Female	1	Friends	Family	Family	Family	Family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2	Family	Mental Relaxation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Family	Family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Family	Family	Family	
	3	Mental Relaxation	Friends	Friends	Health	Health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Free Time	
	4	Free Time	Health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Free Time	Free Time	Friends	
	5	Health	Household Budget	Health	Friends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Free Time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Figure 3: Top five factors considered as important in determining happiness
(by gender & by age)

(Note) The data was extracted from the NSLP (2010) conducted by the Cabinet Office

Because different events happen throughout our life from birth to death including schooling, working, marrying, parenting, and so on, it is totally natural that people’s perception changes towards happiness. In our framework, we have divided one’s life into four stages of life: childhood and youth, adulthood, late adulthood before aged 80, and late adulthood after aged 80.

(c) Specific indicators for children and youth

Among the national well-being indicators, twenty two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children and youth (See Appendix). I will explain them in detail.

Socio-economic condition

***Basic needs**

Child poverty rate will be used to analyze the happiness of childre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child poverty often leads to life-long poverty, and causes a poverty spiral.

***Housing**

In addition to indicators for general public including safety of the community, number of children who have no adult supervision after school was selected.

*** Education**

As for education, 6 indicators are suggested: educational attainment, attainment of life skills, child satisfaction with school environment, experiences during the childhood whether they had close communication with parents, reported cases of bullying, and high school dropout rate. One additional indicator,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cannot study at high school or university due to economic reasons, is decided as one of indicators for adult, but is relevant to child and youth. This indicator has an issue if we should ask this question to parent or chil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people's experiences of education both from the children's and the parents' points of view. For children, school is the plac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therefore, the school environment often contributes largely to decide the level of children's happiness³⁾. Hence, children's satisfaction on school

3) Randolph et al (2010) show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life, and reported case of bullying need to be investigated. Moreover,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spiral of low educational attainment. Parents who have low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can cause a household to suffer from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Chil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re reported to have a correlation with a low level of education in parents⁴⁾. Therefore, encompassing the trend of high school dropout rate and identifying high-risk groups in the population will be essential to prevent inter-generational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Employment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the unemployed youth needs to be investigated. There is a phenomenon of large youth unemployment, existence of the NEET and the problem of *hikikomori*, those who have chosen to withdraw from society and reject leaving their home or even room so they can isolate themselves from society. Nevertheless, there are young people with a more positive attitude, such as ones who start up their own business with creative idea, which bring about a positive impact on the other young people⁵⁾. Hence, it is essential to have indicators particularly for young people, such as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nd the NEET rate as well as the number of youth entrepreneurs, and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hope to become an entrepreneur.

Health

*Physical health

As for children, child mortality rate and infant mortality rate are suggested as indicators. Because these rates are normally higher than that of adult mortality rate, it is better to separate these indicators. In order to capture how many children suffer from illnesses, it is proposed to use the rate of illnesses including modern illnesses such as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4) The Cabinet Office (2011) *The Survey Report: The Situation of Social Exclusion*.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T and adjustment to society is discussed in Norasakkunkit & Uchida (forth coming) and Toivonen et al.(2011)

*Psychologic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is becoming an issue⁶⁾. Referring to happiness,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psychological illness lowers the level of happiness, hence psychological healt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should be measured when determining happiness⁷⁾. The indicators include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number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with counselors, and numbe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The indicators for general public such as the number of suicides, degree of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re also relevant to child and youth. In most case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re caused by excessive stress and mental illness.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know subjective well-being of the dead, it is easily guessed that a person who commits suicide was not a happy individual⁸⁾. Statistically, our preliminary survey discovered that those who have a higher level of suicidal ideation are likely to have a lower level of happiness. (Figure 6)

6) According to Baumeister and Härter (2007), the surveys carried out in the U.S., Australia, Germany, and Holland, 6.6–11.9% of the respondents suffered from mental disorders, and 5.6–18.1% of the respondents suffered from anxiety in the past 12 months.

7) Bergsma et al. (2011) reported that happiness indicators are valid to measure well-being because he found: Patients with psychological disorders less frequently feel happy in comparison to healthy people. Mentally ill patients do not increase their happiness with time, which in other words, patients cannot adjust themselves to the situation and become happier. Regardless mental illness,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nd loneliness is statistically influential to the level of happiness.

8) Although some cross section analysis concludes that there is no relations between level of happiness with suicide, panel data analysis for the last 20 years s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ivumaa-Honkanen et al.(2007), Daly and Wils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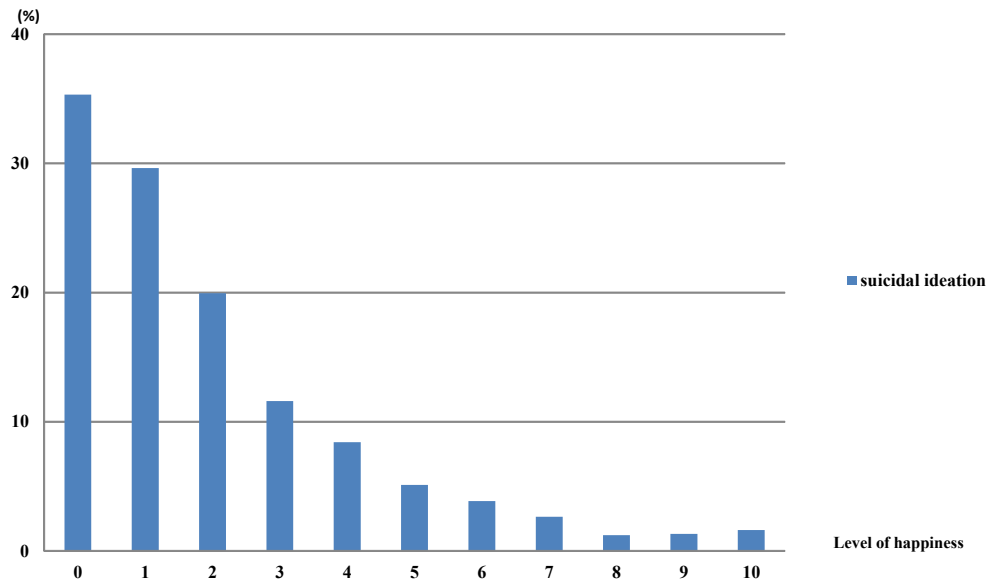


Figure 6: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level of happiness

(Note1) The data was extracted from the preliminary survey

(ESRI (2011) The Survey on Level of Happiness of Young People).

(Note 2) X-axis represents the level of happiness, Y-axis i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either "has unsuccessful suicidal experience" or "has seriously considered to kill themselves" within a year.

According to the above discussions, the indicator of depression is useful to measure adult psychological health. In considering different age groups, however, the indicator of depression is not sufficient. For example, psychological health of children is better captured by the indicator of development disabilities, or the indicator of child abuse. Also, in order to measure mental health of the aged population, dementia is a more suitable indicator to employ.

Additionally, indicators to understand the community and societal support for mentally ill patients, and support for child protection will be useful in order to see how much effort has been made, and how much the community has paid attention to those issues.

Relatedness

*Life style

Life style reflects individual values or preferences that are shaped by the era which we live. But at the same time, life style outlines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al relations. One indicators are included to measure life style for child and young: time management of children.

As stated earlier, Japanese people have a negative image of their own society as “people are too busy to relax”. However, findings from our preliminary survey on young people do not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free time and the level of happiness (Figure 7).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their quality of free time, which can be measured by the satisfaction of time al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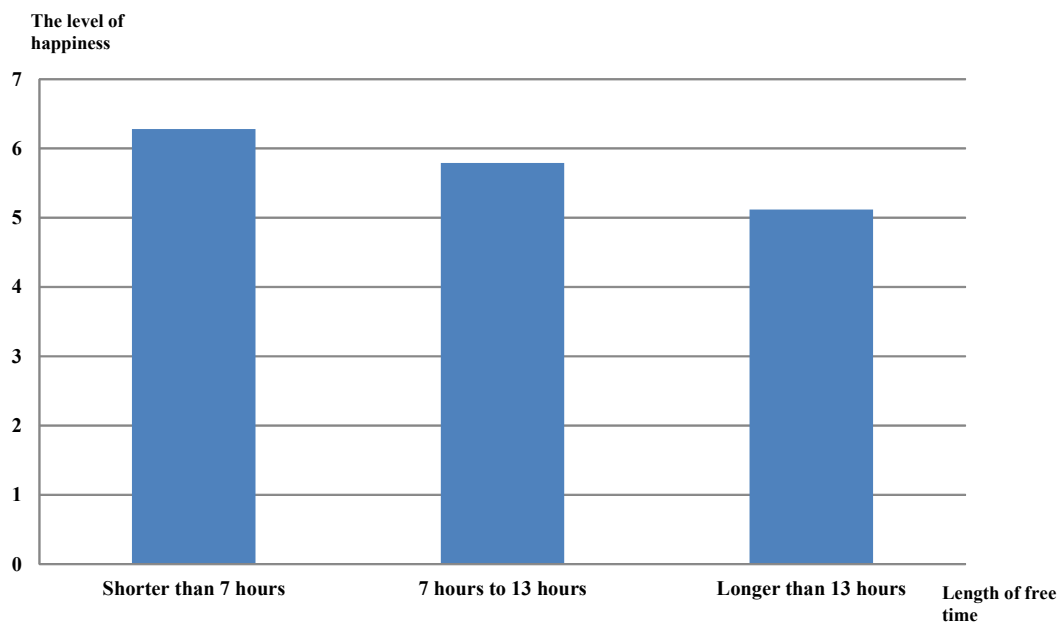


Figure 7: Length of free time and the level of happiness

(Note) The data was extracted from the preliminary survey
(ESRI (2011) The Survey on Level of Happiness of Young People).

It is useful to see how people want to use their free time, whether they are willing to devote their time to the community, or wanting to use all their free time for their own recreation. It is because the way people use their time will consequent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well-being. It is noted that separate indicators for different age groups are needed such as time management of children.

*Family ties

Happiness indicators in Asian countries such as Bhutan and Thailand put importance on family ties, and it is evidenced that the countries with stronger family ties have higher levels of happiness⁹⁾. Also, family relations are said to be crucial in sustaining mental health¹⁰⁾. Hence, this is an essential aspect to be included, and One indicators are suggested for child and youth: number of children and youth who feel isolated,

*Bonding with community

At the tim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solidarity of community played a great role. For example, the community was able to lead safe evacuation during the tsunami or able to establish shelters. Also, it is said that child development is not determined by the family effort but influenced by the neighborhood context¹¹⁾. Hence, bonding with the community is expected to affect one's level of happiness. The indicators include rate of *hikikomori*, feeling of alienation, places for play and community security.

9) Alesina and Giuliano (2007)

10) Cobb (1976)

11) Most studies of neighborhood effect focus on poverty, delinquency, crime, and mental illness (Sampson et al.2002). Leventhal and Brooks-Gunn (2003)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influence in detail; Small & Newman (2001) discusses the problem of single parents and isolation.

III. Happiness initiatives by local governments

Many communities in Japan state that they should achieve citizens' happiness as their mission. The mid- or long-term Strategic Plans by Fukuoka, Kumamoto, Mie, and Nagano Prefecture aim at increasing their residents' happiness. The 5-year Plan by Nagano Prefecture calls "Creating Happy Shinshu (alias of Nagano) Plan".

At municipality level, many cities and towns also emphasize increase of residents' happiness in their mission statement. For instance, the 4-year strategic plan by Saitama City names "Happiness Doubling Plan 2009". The Mayor of Arakawa in Tokyo proposed Gross Arakawa Happiness (GAH) because he believes that the role of municipality is to serve as system to make citizens happy.

Ama, a small island in Shimane Prefecture, developed their strategic plan "Happiness Theory of an Island" in 2009. 60 people from 14 years old to 71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to develop the plan as volunteers and discussed together repeatedly about the future of Ama. As a result, they concluded that they should value and pursuit their happiness that was now difficult to get in urban and proposed 24 concrete proposal for the future of Ama.

In addition, 36 municipalities including Arakawa established "Happiness League (Municipality Union aiming at improving happiness of citizens)" in June, 2013. The most important role of a municipality is to build a community where everyone can feel happy by listening to citizens' fear and wishes and doing best to solve new issues. In order to build a truly happy community, not only individual efforts by a municipality but also mutual cooper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between municipalities which share same value are important. They believe that their efforts can develop Japan as "the super state of happiness" as well as the reform of local governance.

Furthermor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developed or be developing happiness index increases there days. Fukuoka and Kumamoto developed their own happiness index. A research team from 10 prefectures including Fukui Prefectures published "Local Hope Index" in March 2012. The index tries to clarify what we should do and to encourage

residents to involve actions to improve our future as well as next generation's hope and happiness. Arakawa is also developing the GAH index including health, childcare, economic innovation, environment, culture and safety.

IV. Conclusion remarks

Parents hope their children will have a happy life when the child is born. Fundamentally, the purpose of government is to create a society, so its citizens can live their lives happily.

This is word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report by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of Japa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now recognize important of citizens' happiness. Furthermore, they try to identify happiness level of citizens as quantitative measurement. Happiness studies provide important insights when we develop the index and promot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In addition, happiness is interpersonal and can be transmitted between people. It means that happy children and young make adults happy and happy adults make children and young happy. This may be important fact when we construct happy communities.

Reference: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of Japan (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www5.cao.go.jp/keizai2/koufukudo/pdf/koufukudosian_english.pdf

Appendix: Happiness index for child and youth by the government of Japan

	target		indicator	existing data	consideration	examples of overseas
Socio-economic condition	Basic needs					
	individual	children	child poverty rate	*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 EU-SILC
	Housing					
	individual	children	number of children who has no adult supervision after school	none		
	Education					
	individual	children	attainment of life skills (communication skills, being able to help people in trouble, being able to ask for help, and etc.)	* Preliminary survey of young people	The questions should include "Is it easy for you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s?", and "Can you ask for help when you are in trou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PISA • OECD Cognitive/Non-cognitive skill study • NLSY-CS1997
	individual	children	child satisfaction with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school life in general, the Survey on Japanese Youth in Comparison with the Youth of the World (Cabinet Office). The most recent survey was carried out in the fiscal year 2008. * For education in general, quality of teachers, curriculum, and infrastructure of education, NSLP (Cabinet Office) 	The Youth of the World are carried out only every 5 years. The National Survey on Lifestyle Preferences had included the question related to this indicator only o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Survey 2009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stic Bureau) (asking: if they are satisfied with school environment including lecture, teaching, relations with students, relations with teachers, school infrastructure, surrounding environment, awarded degree, and living overall)
	individual	children	experiences during the childhood whether they had close communication with parents or not (whether parents read bed time story etc.)	* Preliminary survey of young people (it has not surveyed on children)	Similar question were included in a survey carried by Professor Tachibanaki, Doshisha Un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SY-CS1997
	individual	children	reported cases of bullying	* Survey on Education towards Problematic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Grasping the number of of bullying is difficult, because it is often hidden.	
	individual	children	high school dropout rate (the rate of people whose educational attainment is	* no exact data available	Based on the Survey on Education towards Problematic Stud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poss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ostat (Population of the non-educated, primary or middle school graduates between 25 and 64

	target		indicator	existing data	consideration	examples of overseas
			below high school)		to understand the rate of the dropouts among ones who have enrolled to the high school. But the rate of people whose educational attainment is below high school cannot be obtained. Although the MIC has the Survey on Labor Force, this survey does not separate primary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and high school graduate.	years old is calculated from the Labor Force Survey)
	individual	adult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cannot study at high school or university due to economic reasons	• Preliminary survey of young people	It needs to consider if this is to ask parents or the children	• Social Survey 2009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stic Bureau) (asking if they could obtained the degree they have deserved)
	Employment					
	individual	youth	the number of the NEET	• White Paper on Labor Economy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dividual	youth	youth unemployment rate	• Survey on Labor Force (Statistics Bureau, MIC)		• National Statistics (various countries) • OECD
	individual	youth	the number of young entrepreneurs	• Survey on Business and Companies (Statistics Bureau, MIC) • Annual Statistics of National Tax Agency (National Tax Agency) • Statistical Yearbook of Civil Rights, Litigation, and Human Rights (Ministry of Law)	This existing data cannot identify the age of entrepreneurs.	
	individual	youth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hope to become an entrepreneur	• Basic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istics Bureau, MIC)	The survey carried out by the MIC asks if they have thought about starting up business, but the question should ask quality aspects.	
	Physical Health					
Health	individual	children	child mortality rate (new born child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 Vital Statistic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t needs to separate mortality rate of new born babies and infants because of its large differences.	• National Statistics (various countries) • WHO Mortality Database
	individual	children	rate of child sickness	• Survey on School Health (Ministry of Education) • Comprehensive		• A Picture of Australia's childr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target		indicator	existing data	consideration	examples of overseas
				Survey of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for hospital outpatients visits		
Relatedness	Mental Health					
	individual	children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as the data on the situation of child counseling in the municipal.		• Child Protection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including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and the number of case successfully managed)
	individual	children	number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with counselors	• Survey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dividual	children	numbe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In 2002, Ministry of Education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Is it really appropriate to use the numbe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isorders? If children have not been examined,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reality.	• HHS (the U.S.) have been conducted every 4 years. • British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Kings College)
	Life style					
	individual	children	time management of children	• Basic Survey on Social Life (Statistical Bureau, MIC)		• National Statistics of Time Use Survey (various countries)
	Family ties					
	individual	children	the number of children and youth who feels isolated	none		• OECD PISA
	Bonding with community					
	individual	children	rate of hikikomori	• The Survey on Hikikomori (the Cabinet Office)	It is done only once.	
	individual	children	feelings of alienation	none	NEET and hikikomori can be used for children as well.	
	individual	children	places for play	none	It needs to consider if the indicators can be exactly same as the U.S., or it should include other aspects such as the communication with other children.	•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U.S.)
	individual	children	community security (neighborhood effect)	• Preliminary survey of young people (crime and violence in the community)		

아동·청소년 행복 지수: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하기

요시아키 다카하시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I. 들어가는 말

“행복하십니까?” 이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다.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탄 정부는 2008년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행복 지수를 만들었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설립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 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CMEPSP)는 보고서에서 “객관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에 관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티글리츠, 센, & 피투시, 2009, p. 16)고 했다. 이 보고서는 행복에 관한 정치적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2010년, 독일 의회는 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성장, 웰빙, 삶의 질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GDP를 중심으로 한 성장 트렌드가 이제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입각해 사회 번영과 개인의 웰빙,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추구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 201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획기적인 저서 〈How's Life?〉(잘 지내고 계십니까?) (OECD, 2011년)에서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를 만들어 제안했는데 이는 OECD 행복지수로써 보다 포괄적인 지표를 담고 있다. 2011년 11월,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는 국립통계청에 영국인을 위한 행복지수 개발을 요청했다.

특히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관점에서 지난 수 십 년 간에 걸쳐 진행된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통찰이 이 정치적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행복은 인류학, 정치학, 신경과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중요한 테마로 간주되고 있다. 행복에 관한 연구 가운데 무척이나 놀라운 발견으로 “행복의 역설(paradox of happiness)”-평균적인 행복은 일인당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을 들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사회-경제적 여건(빈곤, 주택, 교육, 취업), 건강

및 관계성이 행복의 정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중간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 이상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이 요소들이 동반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행복의 역설이 덜 역설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또한 행복에 관한 연구는 측정 도구에 관계 없이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점을 보여준다(Helliwell & Wang, 2012). 일본의 자살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군에 속한다. 자살은 20대와 40대 초반 남성, 십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에서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당수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 경제 성장을 위해 친밀한 가족 관계, 지역 사회 소속감, 기타 행복을 위한 요소를 희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 성장이 행복을 의미하는가”, “GDP는 행복과 동의어인가?” 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정부는 당연히 국가 목표와 정책 목적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 정부가 어떻든, 정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단지 GDP만이 아닌, 국민의 웰빙을 진작시키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웰빙과 사회 진보를 측정해 왔다. 웰빙과 사회 진보 측정은 웰빙에 관한 정의, 측정 방법 및 기본 틀, 웰빙 지표 및 제안된 범위 측정에 관한 실재적 방법의 유용성을 포함해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본 발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에 관한 몇 가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일본의 새로운 지표인 국가 웰빙 지표를 비롯해 일본 내 지자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 이니셔티브 일부를 설명해본다.

II. 일본 정부 주도의 국가웰빙지표(행복지수)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사회 진보 지표로 “National Well-being Indicators(국가웰빙지표)-Happiness Index(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2010년 6월 내각이 채택한 신 성장 전략 보고서 4장에는 “우리의 목표는 Sanpo-Yoshi [3가지 면에서 모두 좋다]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 환경, 사회의 3가지 기본적 요소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적혀 있다. 일본의 국가 웰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내각사무처는 행복 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2010년 12월, 경제·재정 정책 장관 자문 기구로 일본 웰빙 측정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일본과 외국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연구 통찰력을 최대한 활용한 국가웰빙지표 기본 틀 구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어떤 요소가 일본인의 행복에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적 행복 조사와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실행하였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물로, 위원회는 2011년 12월 웰빙 측정과 사회 진보 진작에 관한 OECD 아시아-태평양 회의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행복지수를 제안했다(위원회, 2011년).

일본으로선 일의 진행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행복 지수가 필요했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건강 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행복 지표는 전반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른 지역적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는 도구다. 이러한 지표를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정책 토론에서 “행복”과 개인들의 “느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는, 행복 지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1) 개인 행복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조사하고 행복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점과 불리한 점을 확인한다. 또 사회에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과 퇴보하고 있는 영역을 알아본다.
- 2) 폭넓은 토론을 위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들에게 개인 행복만이 아니라 국가 행복을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사회만이 갖고 있는 면들을 재평가함으로써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러한 면들이 우리 사회에 유익하거나 해롭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통 일본인들은 위기 시에는 침착하고 도덕주의자처럼 행동하며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하기에 도시는 깨끗하다. 이것들은 일본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인다.

또한, 지표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거나 개선하는데 일조한다. 지표들이 보여주는 증거에 근거해 미래 공공 정책을 제안하는데도 도움을 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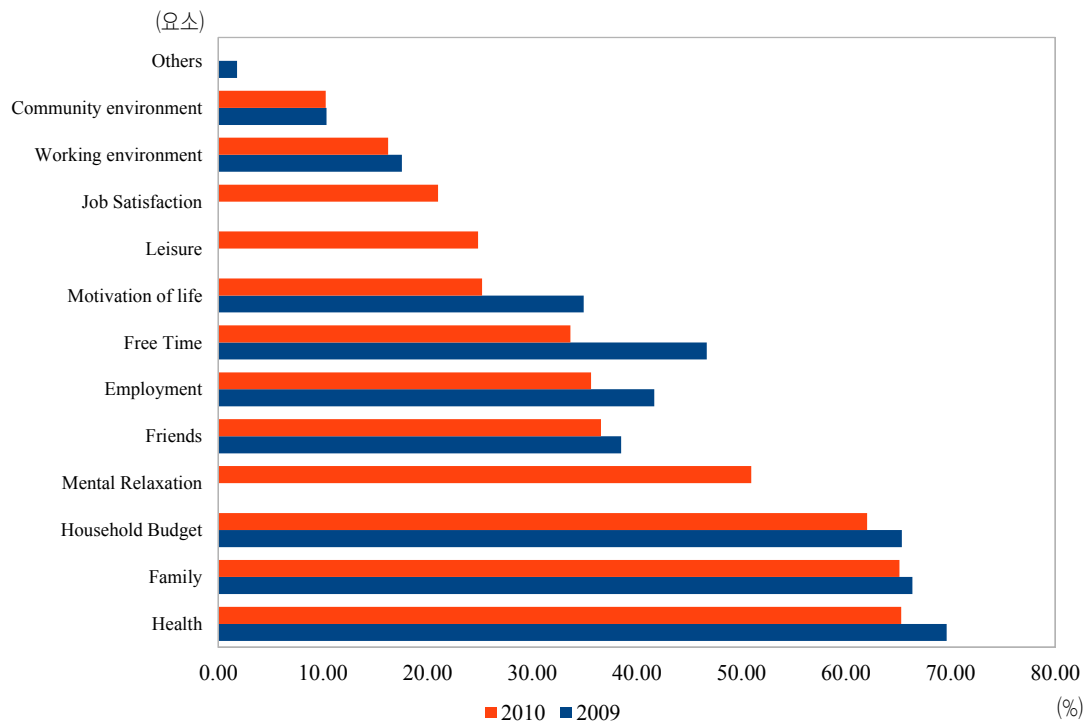
1. 제안된 지표들

(a) 3가지 주요 분야

행복 지표를 제안하고자 할 때, 해당 기관이 국가 정부, 세계 기구, 민간 연구소이건 간에, 첫

1) 부탄 정부는 지표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웰빙 지표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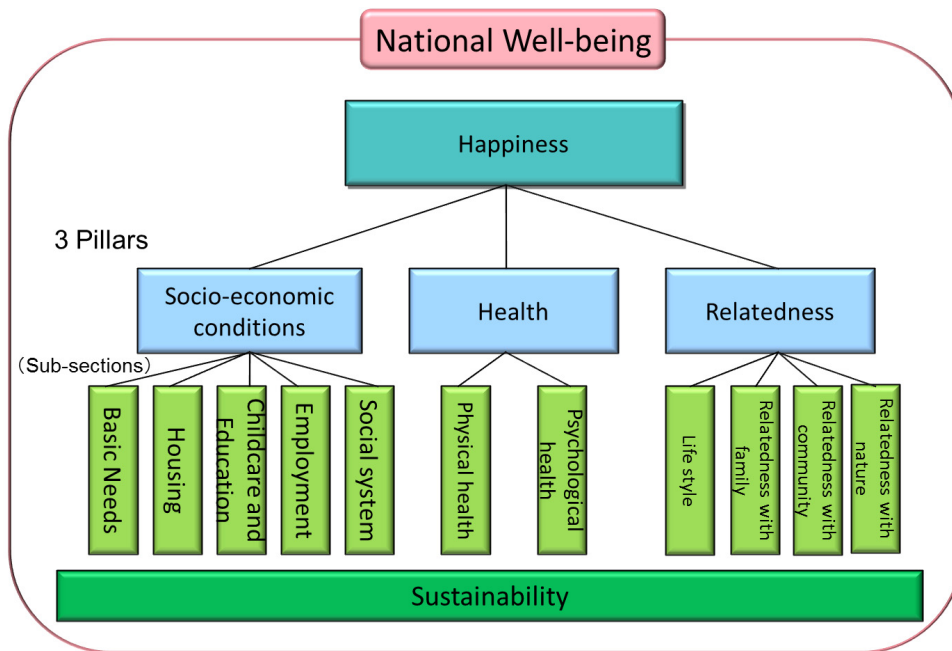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 국가 웰빙을 구성하는 지에 관해 논의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웰빙이 대부분 기본 틀에서 중심 지표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행복의 주관성과 다차원성을 반영, 주관적 웰빙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²⁾. 제안된 행복 지표에 어떤 분야를 포함시킬지를 결정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전국조사(NSLP)를 참조용으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1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 가족, 가계비, 정신적 긴장완화, 친구, 취업, 자유 시간, 삶의 동기부여, 레저, 업무 만족, 작업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건강, 가족, 가계비, 정신적 긴장완화가 사람들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그림 1)



[그림 1]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요소들
(행복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각의 요소를 선택한 사람들의 퍼센티지)

* 결과는 2009, 2010 NSLP에서 나온 것이며 일부는 2010년에 개정, 변경되었다.

2) 예를 들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물질 생활 조건, 삶의 질, 지속가능성의 3가지 개념적 기본 틀을 제시한다. 반면, 유럽연합통계청은 생리적 욕구, 물리적 환경, 개인의 가치 있는 활동, 자율성과 자유, 관계성 및 소속감, 자존심과 역량의 6가지 웰빙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2] 제안된 국가웰빙지표 기본 틀

* 일본 웰빙측정위원회(2011)의 그림 4

NSLP와 기타 국제 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3가지 영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12가지 요소 외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모든 면을 살펴보기 위해 기타 다양한 중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3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관계성. 각각의 영역은 여러 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b) 라이프 스테이지 차이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 각각의 요소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기본 틀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엄밀히 고찰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십대 후반과 20대 초반 남성은 자신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정신적 긴장완화”를 3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림3). 한편, 20대 후반과 50대 초반 남성인 경우, “가계비” 또는 “가족”이, 55세 이상 남성은 “건강”을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십대 소년과 마찬가지로 십대 소녀들 역시 “친구”가 가장 중요한 행복 요소로, “정신적 긴장완화”가 3번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끼쳤다.

20대 초반과 30대 후반 여성에게 “가족”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40세 이상인 경우 “건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계비”가 가장 중요한 행복 요소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Sex	Top 5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Age) 75-79
Male	1	Friends	Friends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2	Free Time	Family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Health	Health	Health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Family
	3	Mental Relaxation	Motivation of life	Employment	Health	Mental Relaxation	Family	Family	Family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4	Family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Health	Mental Relaxation	Employment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5	Motivation of life	Household Budget	Health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Mental Relaxation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Free Time	Free Time	Free Time
Female	1	Friends	Family	Family	Family	Family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Health
	2	Family	Mental Relaxation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Family	Family	Family	Household Budget	Family	Family	Family	Family
	3	Mental Relaxation	Friends	Friends	Health	Health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Family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Household Budget	Free Time
	4	Free Time	Health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Free Time	Free Time	Friends
	5	Health	Household Budget	Health	Friends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Free Time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그림 3]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상위 5개 요소들(성별 & 연령별)

* 본 데이터는 내각사무처가 실시한 NSLP(2010)에서 발췌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 동안 학업, 노동, 결혼, 부모 역할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지극히 당연하다. 기본 틀 안에서, 사람의 일생을 4단계 삶으로 나누었다: 아동기와 청소년, 청장년, 80세 이하 노장년, 80세 이후 노장년.

(c) 아동과 청소년 특정 지표

국가웰빙 지표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2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부록 참조).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여건

*기본적 욕구

아동 행복 분석을 위해 아동 빈곤율을 사용한다. 아동 빈곤은 평생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지역사회 안전을 포함해 일반인에 대한 지표 외에, 방과 후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동의 수를 선정하였다.

* 교육

교육에서는 6개 지표가 제시되었다: 교육 정도(educational attainment), 생활 기술(life skills) 획득, 학교 환경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집단 따돌림 보고 사례, 고등학교 중퇴율. 한가지 추가 지표로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청소년 수는 성인에 대한 지표의 하나로 결정하였지만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 이 지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부모나 아이에게 물어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동과 부모의 관점 모두에서 사람들의 교육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경우, 학교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 환경은 아동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³⁾.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 생활 만족도와 집단 따돌림 보고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낮은 교육률이 갖는 부정적 악순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 정도가 낮은 부모의 가정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부모의 낮은 교육 정도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따라서, 고등학교 중퇴율 경향을 포함하고 고 위험 집단을 찾는 일은 세대간 빈곤과 사회적 배제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

*취업

미 취업 청년의 복잡한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청년 실업, 니트족(NEET), 사회 활동을 포기하고 집이나 방 밖을 나가길 거부하며 사회와 담을 쌓는 일종의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젊은이들처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이들도 있고 이는 다른 청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⁵⁾. 따라서, 청년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청년 실업률, NEET족 증가율, 청년 기업을 숫자, 기업가를 희망하는 청년 숫자와 같은 지표들이 필요하다.

3) Randolph와 그 외 동료들 (2010)은 학생의 생활 만족도와 학교 생활 만족도 간에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4) 내각사무처 (2011) 조사 보고서: 사회적 배제 현황.

5) NEET족과 사회 적응간 관계는Norasakkunkit & Uchida (forth coming) 와 Toivonen 및 그 외 동료(2011)에서 논의되었다.

건강

*육체적 건강

아동의 경우, 아동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이 지표로 제시되었다. 이 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좋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천식,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현대적 질병을 포함해 질병 발생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심리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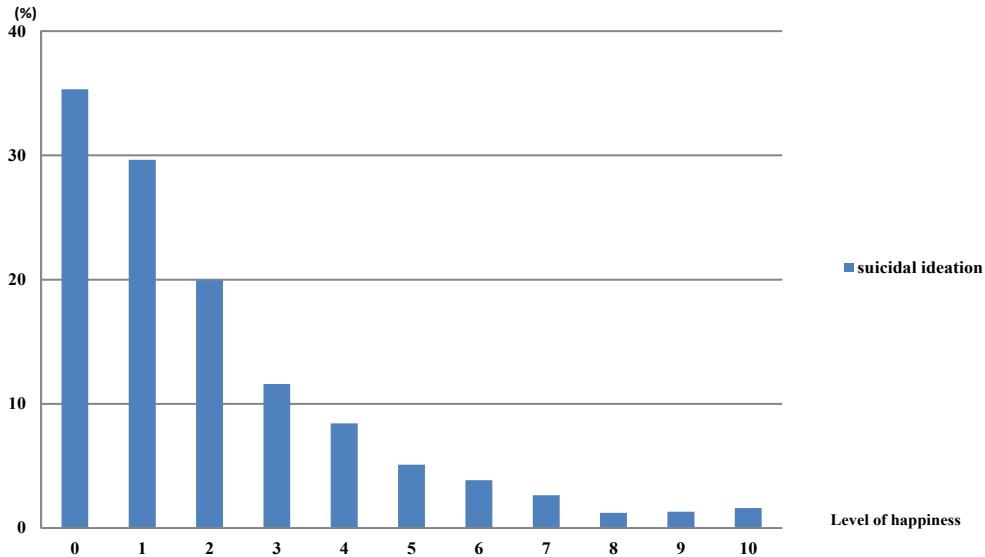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⁶⁾. 행복과 관련해, 이전 연구들은 심리적 질병이 행복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심리적 건강은 행복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⁷⁾. 지표에는 아동 학대 보고 사례, 상담사가 있는 아동 보호 시설 숫자,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 숫자가 포함된다.

자살자 숫자, 스트레스 정도, 자살성 사고(suicidal ideation)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지표 또한 아동 및 청소년과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살성 사고와 자살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죽은 자의 주관적 웰빙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자살을 한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⁸⁾. 통계적으로, 우리가 실시한 예비 조사는 높은 수준의 자살성 사고를 가진 사람은 행복도도 낮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림 6)

6) Baumeister와 Härter (2007)에 따르면, 미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6.6-11.9%가 지난 12개월 동안 불안을 겪었다고 답했다.

7) Bergsma와 그 외 동료들은 (2011) 행복 지표가 그가 발견한 웰빙을 측정하는데 유효하다고 보고했다: 심리적 장애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끼는 빈도가 높다. 정신 질환 환자는 시간이 가도 행복이 증대되지 않으며 이는 환자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행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신 질환과 무관하게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외로움은 통계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

8) 일부 횡단면 분석이 행복도와 자살간에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지난 20년 간의 패널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Koivumaa-Honkanen과 그 외 동료(2007), Daly 와 Wilson (2008))



[그림 6] 자살성 사고와 행복도간 관계

* 본 데이터는 예비 조사에서 뽑은 것임(ESRI(2011) 청소년 행복도 조사).

** X축은 행복도를 나타낸다. Y축은 1년 사이에 “자살 실패 경험” 혹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다.

위 논의에 따르면, 우울증 지표는 성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연령 그룹을 고려할 경우, 우울증 지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심리적 건강은 발달 장애나 아동 학대 지표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 인구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보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

또한,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 역시 투입된 노력, 이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정도를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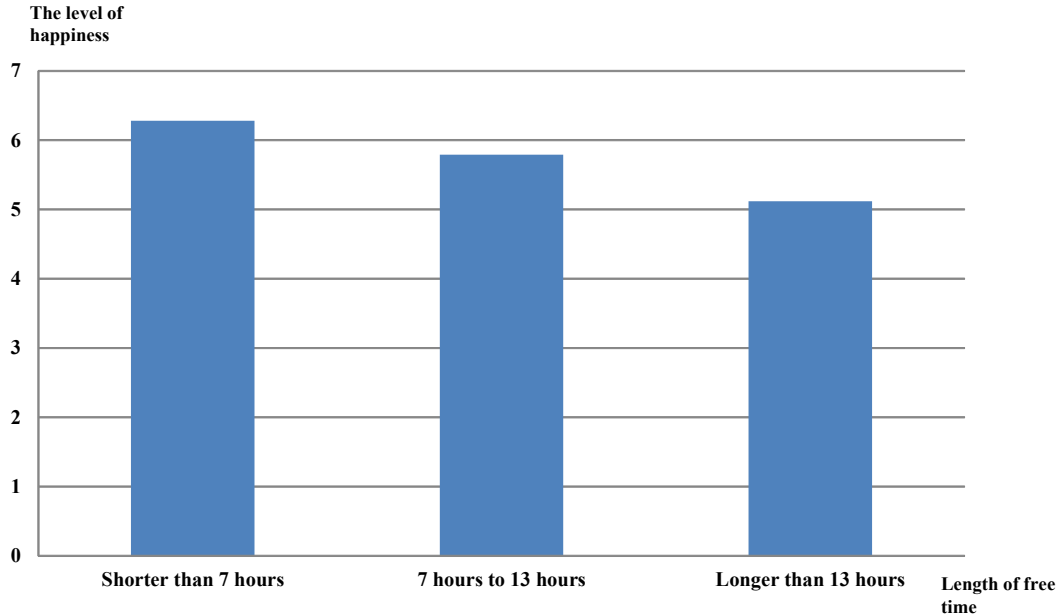
관계성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만드는 개인적 가치나 선호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가 갖는 대강의 열개를 보여주기도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측정에 한가지 지표가 포함되는데 아동의 시간 관리가 바로 그 것이다.

앞서 진술한대로, 일본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사람들이 너무 바빠 쉴 틈이 없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시한 예비 조사에 의하면 자유

시간과 행복도간에 양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7). 따라서, 자유 시간의 質을 조사해 보아야 하며 이는 시간 배분에 관한 만족도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7] 자유 시간 길이와 행복도

* 본 데이터는 예비 조사에서 발췌(ESRI (2011) 청년행복도 조사).

지역사회에 기여이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자신만의 여가 활동을 위해 자유 시간을 쓰고 싶어하는지, 청소년들이 주어진 자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는지 알아보는 일은 유익하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국가웰빙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시간 관리와 같이 서로 다른 연령 그룹을 위한 개별 지표들이 필요함을 주목해야 한다.

*가족 유대

부탄과 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행복 지수는 가족 유대를 중요시한다. 가족 유대가 강한 국가들이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⁹⁾.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는 정신 건강 유지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이는 포함시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아동과 청년을

9) Alesina 와 Giuliano (2007)

대상으로 한 행복도 측정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아동과 청소년 숫자라고 하는 지표를 제안한다.

*지역사회 유대

일본동부대지진 발생 당시, 지역사회 연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지역사회는 쓰나미 상황에서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거나 피난처를 만들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동 발달은 가족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문맥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¹¹⁾.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유대는 개인의 행복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에는 히키코모리 발생률, 소외감, 놀이 공간 및 지역사회 안전이 포함된다.

Ⅲ. 지자체 주도 행복 이니셔티브

일본의 많은 지역사회는 시민의 행복 달성을 자신들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후쿠오카, 구마모토, 미에, 나가노 현 등에서 추진하는 중장기전략계획안은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가노 현의 5년 계획안은 “행복한 신슈-‘진취’라는 뜻-역자 주(나가노의 별칭)만들기 계획”이라 불린다.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도시와 마을 역시 주민의 행복 증진을 주된 임무로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 시의 4년 전략 계획안은 그 이름이 “행복 두 배로 하기 계획 2009”이다. 도쿄 아라카와 시장은 아라카와총행복(GAH)을 제안했는데 이는 지자체의 역할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봉사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믿음 때문이다.

시마네 현에 있는 작은 섬 아마는 2009년에 전략계획인 “섬의 행복이론”을 개발했다. 14세부터 71세 주민 60명이 자원 봉사자로서 해당 계획안 개발 논의에 참여, 아마섬의 미래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도시에서는 요원한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섬의 미래를 위한 24개의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아라카와를 포함해 36개 지자체가 “행복 리그(시민 행복을 높이는 지자체 연합)”를 2013년

10) Cobb (1976)

11) 이웃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빈곤, 비행, 정신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ampson과 그 외 동료2002). Leventhal and Brooks-Gunn (2003)은 심리적 영향을 자세히 조사했다; Small & Newman (2001)은 편부모 및 고립 문제를 논의했다.

6월 창설했다.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이 우려하고 바라는 바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누구나 행복해 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지식 경영이 중요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일본을 “최고의 행복한 국가”는 물론, 지역 관리 개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나아가, 다수의 행복 지수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지자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 후쿠오카와 구마모토는 각자의 행복 지수를 계발했다. 후쿠이현을 포함해 10개 현에서 파견된 연구 팀은 2012년 3월 “지방 정부 희망 지수”를 발표했다. 지표는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희망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아라카와 또한 건강, 보육, 경제 혁신, 환경, 문화, 안전을 포함한 GAH 지수를 개발 중에 있다.

IV. 맺는 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목적은 시민들이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웰빙측정위원회가 펴낸 보고서 도입부에 있는 말이다.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는 현재 시민의 행복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양적 측정을 통해 행복 수준을 확인하려 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지수를 계발하고 증거에 입각한 정책을 도모할 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행복은 대인관계를 통해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다. 이는 행복한 아이와 청소년이 어른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어른은 아동과 청소년을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

일본웰빙측정위원회 (2011), *국가웰빙측정: 웰빙 제안 지표*,

http://www5.cao.go.jp/keizai2/koufukudo/pdf/koufukudosian_english.pdf

에서 검색

[부록] 일본정부가 실시한 아동 및 청소년 행복 지수

		대상	지표	기존 데이터	고려 사항	해외 사례
사회·경제적 여건	기본적 욕구					
	개인	아동	아동 빈곤율	• 국민 생활 여건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보건노동후생성)		• OECD • EU-SILC
	주택					
	개인	아동	방과 후 돌봐 줄 어른이 없는 아동 숫자	없음		
	교육					
	개인	아동	생활 기능 획득 (의사소통 기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 등.)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질문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가?”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 OECD PISA • OECD 인지/비인지 기술 연구 • NLSY-CS1997
	개인	아동	아동의 학교 만족도	• 일반적인 학교 생활, 세계 청소년들과 비교한 일본 청소년에 관한 조사 (내각사무처). 가장 최근 조사는 2008년도에 실행되었다. • 일반적인 교육, 교사의 질, 커리큘럼, 교육 인프라, NSLP(내각사무처)	해외 청년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는 이 지표와 관련한 질문을 단 한번 포함시켰다.	• 2009사회조사 (한국 정부 통계청) (질문: 이들은 전반적인 생활, 학점, 주변 환경, 학교 인프라,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수업, 강의를 포함한 학교 환경에 만족해하는가?)
	개인	아동	어린 시절 경험: 부모와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부모가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 주었는가 등)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동지사대학 다치바나키 교수가 실시한 조사에 유사 질문이 포함되었다	• NLSY-CS1997
사회·경제적 여건	개인	아동	집단 따돌림 보고 사례	• 문제 학생에 대한 교육 조사(문부성)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 사례 건수 파악이 어렵다	
	개인	아동	고등학교 중퇴자 수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이하인 사람 숫자)	• 별도의 가용 데이터 없음	문제 학생에 대한 교육 조사에 기반하여(문부성), 고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가운데 중퇴자 숫자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이하인 사람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 MC가 노동력에 대한 조사는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생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 유럽연합통계청 (25세부터 64세 사이 무학력자,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졸업자 수는 노동력 조사에서 계산한다)
	개인	성인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청소년 숫자	• 청소년 대상 예비 조사	이를 부모나 아이들에게 물어야 할지 고려한다	• 2009사회 조사 (한국 정부 통계청) (학위 취득이 가능했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대상		지표	기존 데이터	고려 사항	해외 사례
	취업					
	개인	청소년	NEET족 숫자	• 고용 경제 백서 (보건노동후생성)		
	개인	청소년	청년 실업률	• 노동 인력 조사 (통계청, MIC)		• 국가통계(다양한 국가) • OECD
	개인	청년	청년 기업가 숫자	• 비즈니스 및 기업 조사 (통계청, MIC) • 국세청 연례 통계 (국세청) • 민권, 소송, 인권 통계 연감 (법무성)	이 기존 데이터로는 기업가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	
	개인	청년	기업가를 희망하는 청년 숫자	• 고용에 관한 기초 조사 (통계청, MIC)	MI가 실시한 본 조사는 이들이 기업 창업을 생각한 바 있는지 묻지만 질적인 면을 물어야 한다.	
건강	육체적 건강					
	개인	아동	아동 사망률(신생아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	• 바이탈 통계 (보건노동후생성)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생아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 국가 통계(다양한 국가) • WHO(세계보건기구) 사망률 데이터베이스
	개인	아동	아동 질병 발생률	• 학교 보건 조사 (문부성) • 국민 생활 여건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보건노동후생성) 병원 외래환자 방문 조사		• 호주 아동들 사진(호주 정부)
	정신 건강					
	개인	아동	아동 학대 보고 사례	• 보건노동후생성은 지자체의 아동 상담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 아동 보호 호주 (호주 정부) (보고 사례 숫자,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 숫자 포함)
	개인	아동	상담원이 있는 아동 보호 시설 숫자	• 사회복지지기관 조사 (보건노동후생성)		
	개인	아동	발달 장애 아동 숫자(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2002년, 문부성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발달 장애 아동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 만일 아이들을 검사하지 않았다면, 현실을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 HHS (미국)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 영국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조사 (킹즈 칼리지)
	라이프스타일					
관계성	개인	아동	아동의 시간 관리	• 사회 생활에 관한 기초 조사 (통계청, MIC)		• 시간 사용 조사에 관한 국가 통계 (다양한 국가)
	가족 유대					
	개인	아동	고립감을 느끼는 아동과 청소년 숫자	없음		• OECD PISA
	지역사회와의 유대					
	개인	아동	히키코모리 숫자	• 히키코모리 조사 (내각사무처)	단 한 번 실시.	

대상		지표	기존 데이터	고려 사항	해외 사례
개인	아동	소외감	없음	NEET족과 히키코모리는 아동을 대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	아동	놀이 공간	없음	지표가 미국의 것과 정확히 같은지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다른 면들을 포함시킨다.	• 아동 건강에 관한 전국 조사 (미국 보건복지부)
개인	아동	지역사회 보안 (이웃 효과)	• 청소년 대상 예비 조사(지역사회 내 범죄 및 폭력)		

발표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Pamela Wridt

(Co-director of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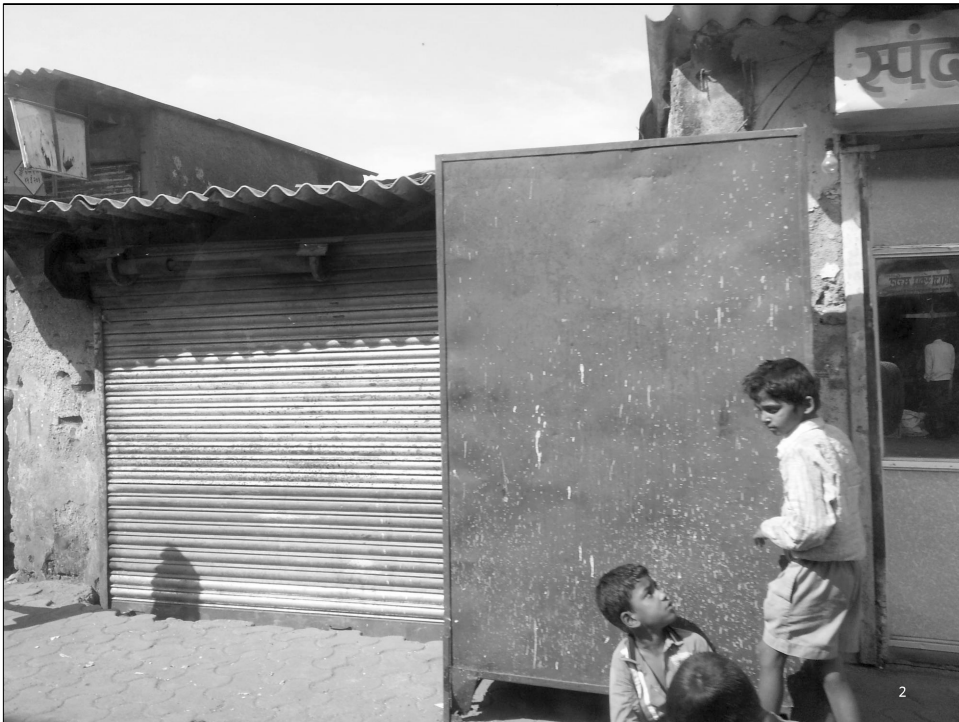
Pamela Wridt 박사

Pamela Wridt 박사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장학금을 연계하는 뉴욕시립대학교 아동환경연구소의 공동소장이다. Wridt 박사는 교육학, 지리학, 프랑스어, 환경심리학 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시립대로 옮기기 전까지 5년간 콜로라도대학교의 교수로 일하며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를 가르쳤다.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아동 권리와 공동체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리소스를 개발,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유니세프, 아동인권 국제연구 네트워크 (Childwatch International), 버나드 반 리어 재단(Bernard van Leer Foundation)과 협력해 전세계 십수개 국 이상에서 *아동친화적도시및지역사회연구계획(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Research Initiative)*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도시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 아동, 청소년, 부모 및 시민사회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가 및 계획 도구가 마련되었다. Wridt 박사는 기후 변화가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이티, 앙골라, 미국 등에서 이러한 응급상황적 맥락의 연구를 주도해왔다. 현재 그녀는 브라질 및 인도의 대규모 도심 일부에서 나타나는 빈민가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 증진과 온전한 발달을 돕기 위해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을 참여적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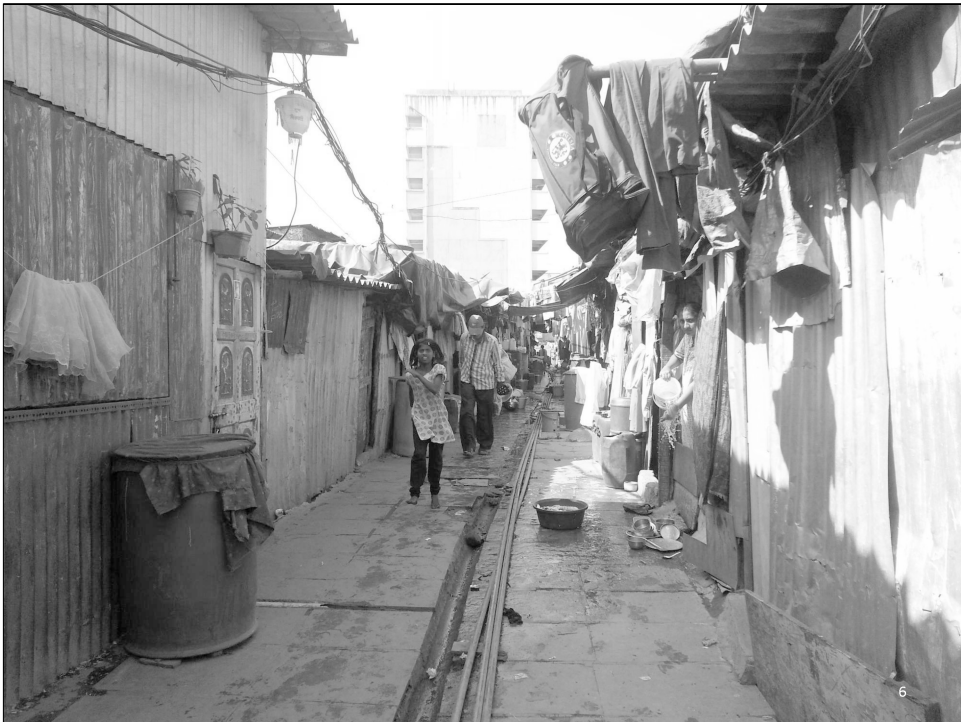
Dr. Pamela Wridt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ttp://cernyc.org>
pwridt@gc.cuny.edu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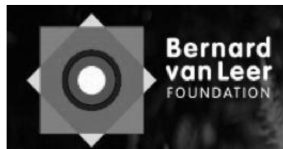




Dr. Roger Hart
Dr. Pamela Wridt
<http://cergnyc.org>



Innocenti Research Centre
Country Offices
National Committees
Education Section, HQ
<http://childfriendlycities.org>



Dr. Selim Iltus
<http://www.bernardvanleer.org/>



<http://www.childwatch.uio.no/>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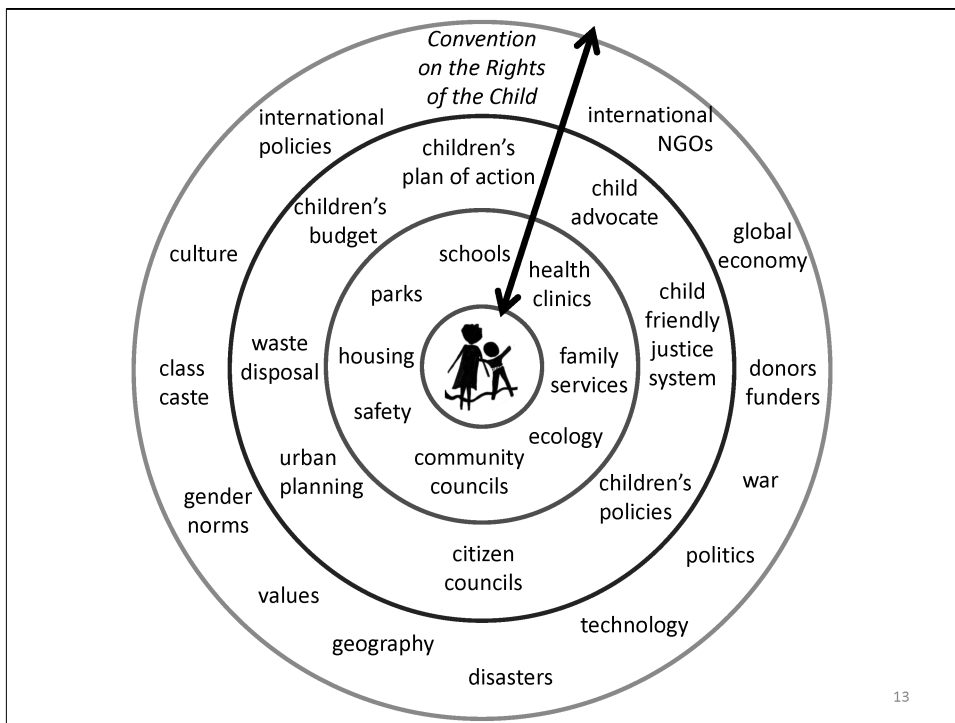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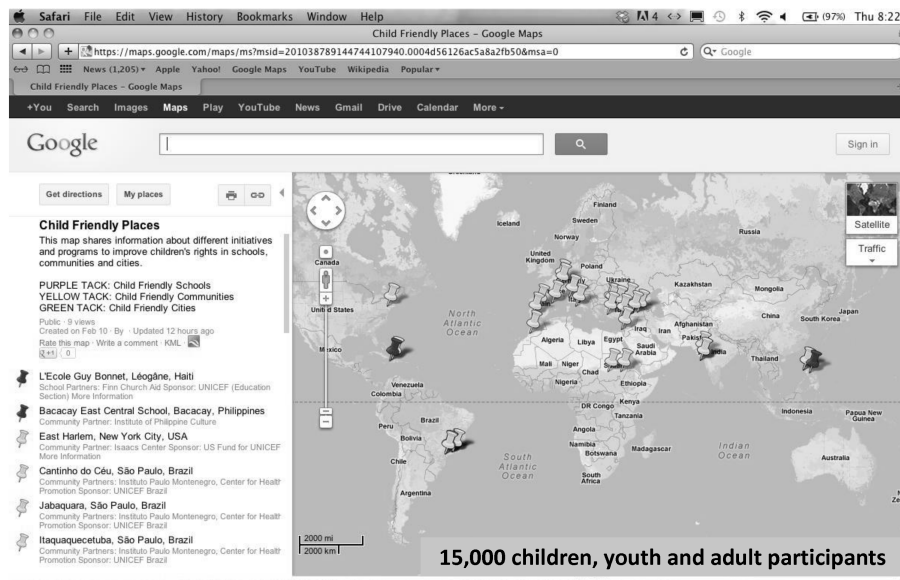


12



13

Case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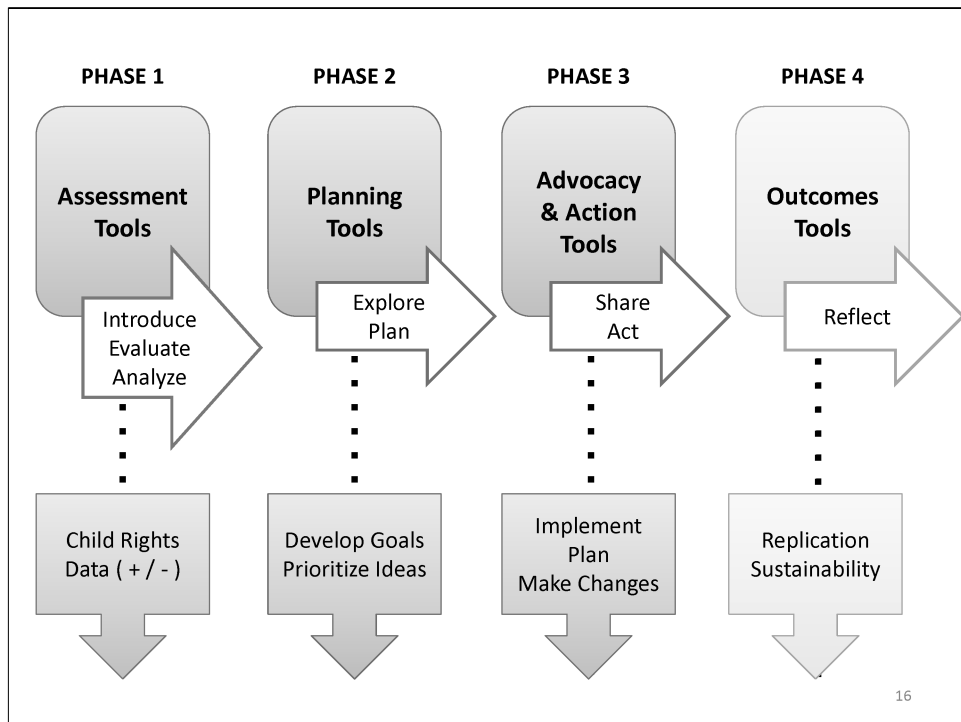


14

Child Friendly Places Resource Kit



15



16

**Play &
Recreation**

**Nature &
Ecology**

**Housing &
Learning
Environments**

Participation





**Safety &
Protection**

**Health &
Social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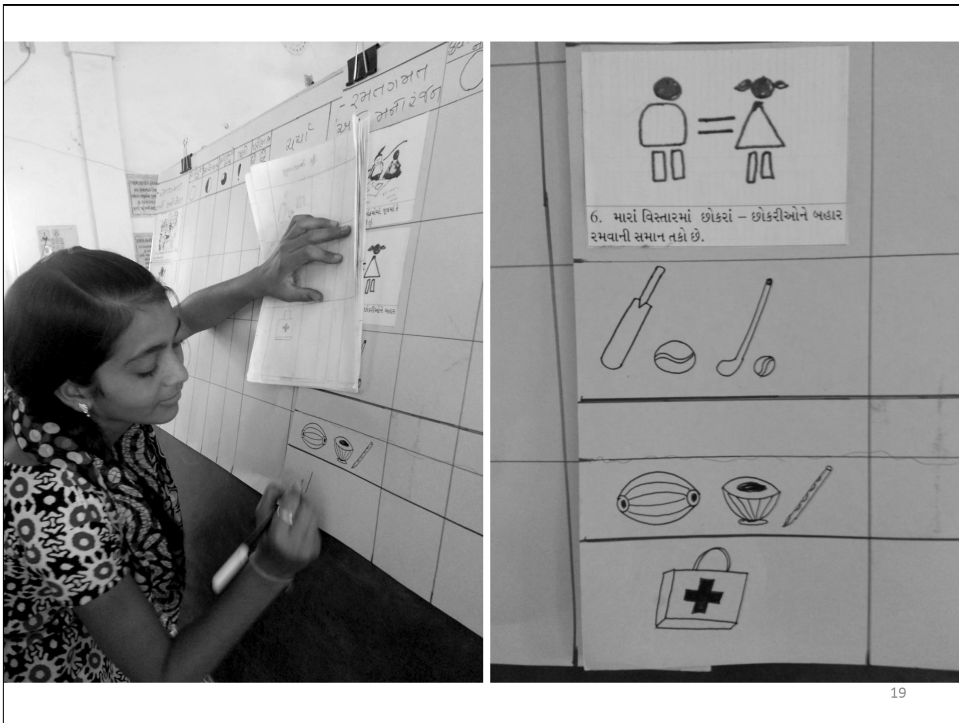
17

Play and Recreation

How can our community be improved for play and recreation?

Image	Topic	CRC	Children (6-12)	Youth (13-18)	Parents of Children (0-18)	Community Service Providers
	Play Spaces	31	1. In my community I have places for play, games and sports	1. In my community I have places for play, games and sports	1. In my community my children have places for play, games and sports	1. In the community children and youth have places for play, games and sports
	Free Time	31	2. I have time to play, rest and enjoy myself	2. I have time to play, rest and enjoy myself	2. My children have time to play, rest and enjoy themselves	2. Children and youth have time to play, rest and enjoy themselves
	Accessible Play	23, 31	3. The places for play in my community can also be used by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3. The places for play in my community can also be used by youth with physical disabilities	3. The places for play in my community can also be used by children and youth with physical disabilities	3. The places for play in the community can also be used by children and youth with physical disabilities
	Cultural Opportunities	13, 29, 30, 31	4. I participate in, or observe festivals and events of cultures and religions different from my own	4. I participate in, or observe festivals and events of cultures and religions different from my own	4. My children participate in, or observe festivals and events of cultures and relig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4.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e in, or observe festivals and events of cultures and relig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18



19

1. In my community I have places for play, games and sports




Never True	Sometimes True	Mostly True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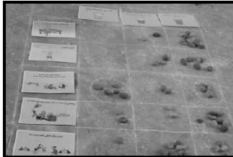







Ages 6-9

Play and Recreation		Never True	Sometimes True	Mostly True
	1. In my community I have places for play, games and sports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2. I have time to play, rest and enjoy myself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3. The places for play in my community can also be used by youth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4. I participate in, or observe festivals and events of cultures and religions different from my own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I participate in projects, programs, groups or activities in my community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6. Boys and girls have equal opportunities to play outside in my communit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Ages 10+

20

Never true	Sometimes true	Always true
 Rate 0	 Rate 1	 Rate 2























الاطفال يشعرون بالأمان في البيت
 Children feel safe at home

UNICEF Sudan 21

1 2 3 4 5 6 7 8

Facilitators: John Smith Group: Children 8-12 Males: 10 Females: 9 Total: 19

Learning Environments	Never True	Sometimes True	Mostly True	Errors	Results	Comments	Priorities
							
11. I can use a science or math laboratory at school	4	5	10	0		The school lab can be used by most students, but not with students who have disabilities	
12. I have access to the Internet at school or in my community	9	9	0	1		The school does not have the Internet, but some children can get online in their community	
13. My school is designed to support children with disabilities	4	10	5	0		The school can be used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but only during the rainy season when there are ramps	
14.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a toilet that they can use at school	10	4	3	2		Our school does not have a toilet for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but children who cannot hear can use the toilets easily	
15. There are separate toilets for girls and boys	10	0	8	1		There are separate toilets for boys and girls but the toilets are locked. Sometimes girls and boys have to share.	
16. The school furniture can also be used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10	3	4	2		The furniture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9



**CHILD FRIENDLY COMMUNITIES
USA**

Increasing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25



**CHILD FRIENDLY COMMUNITIES
BRAZIL**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Play

26



CHILD FRIENDLY SCHOOLS THE PHILIPPINES

Preparing Schools for Climate Change

27



CHILD FRIENDLY SCHOOLS HAITI

Improving Schools After a Disaster

28



Case Studies

Child Friendly Places
 This map shares information about different initiatives and programs to improve children's rights in schools, communities and cities.

PURPLE TACK: Child Friendly Schools
YELLOW TACK: Child Friendly Communities
GREEN TACK: Child Friendly Cities

Public: 9 views
 Created on Feb 10 By: Updated 12 hours ago
 Rate this map: Write a comment: KML

- L'Ecole Guy Bonnet, Léogâne, Haiti**
 School Partners: Finn Church Aid Sponsor: UNICEF (Education Section) More Information
- Bacacay East Central School, Bacacay, Philippines**
 Community Partner: Institute of Philippine Culture
- East Harlem, New York City, USA**
 Community Partner: Isaac Center Sponsor: US Fund for UNICEF More Information
- Cantinho do Céu, São Paulo, Brazil**
 Community Partners: Instituto Paulo Montenegro, Center for Health Promotion Sponsor: UNICEF Brazil
- Jabaquara, São Paulo, Brazil**
 Community Partners: Instituto Paulo Montenegro, Center for Health Promotion Sponsor: UNICEF Brazil
- Itaquaquecetuba, São Paulo, Brazil**
 Community Partners: Instituto Paulo Montenegro, Center for Health Promotion Sponsor: UNICEF Brazil

15,000 children, youth and adult participants

<http://www.childfriendlyplaces.org>

Temporary site at:

<http://cergnyc.org/child-friendly-places/>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Introduction

It is an honor to be here this afternoon to celebrate 24 year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I would like to thank Dr. Sang Bai and the conference organizers for inviting me to be here today to learn from the efforts underway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Asia more broadly. When I began thinking of the conference theme on happy comm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 I immediately asked myself: What do children and youth consider a happy community or city? Is it different than what I consider to be a happy community or city? How do we know when children and youth are happy, or unhappy? What does a community or city look like if its children and youth are happy or unhappy?

I was struck by the similarity of this conference theme with an initiative I am directing on behalf of the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CERG) to create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Of course, what does it mean for a community or city to be "friendly" to children and youth? Is it the same as being a happy community for children and youth? It seems we are on a similar journey all over the world to better understand the needs, desires, and aspirations of children and youth. I am thankful for this learning exchange with my colleagues today and to listening to their important perspectives in this topic area. And I am pleased today to share more about information about this global action research project CERG has been involved with to create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This research initiative began in 2008 with a wide range of partners in over a dozen countries to develop participatory methods that empower civil society groups to assess

and improve the conditions that fulfill children's rights in their communities and cities. Our broad goal has been to develop ways to empower children, youth and adults to create and sustain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by developing tools and processes that enable them to work across the generations and with governments to create better environments.

Child friendly places are schools, communities and cities that integrate children's rights into local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es to ensure the protection, participation, and provision of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 Children's rights are outlin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established minimum standards for the wellbeing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th aged 0–18.

Why are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important?

There are four global issues that significantly impact the living and learning conditions of children and youth that we hope to document and help influence through our research:

#1 – Urbanization

Most of the world's children live in urban areas that do not support their safety and wellbeing.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Report in 2012, one billion children live in urban settings around the world, and by 2020, 1.4 billion people will live in informal settlements or slums. However, there is little to no data on the conditions of these informal settlements; in some cases they do not even exist on maps used by the government to make decisions. In other cities, the government only has reliable data for urban regions, which masks the inequality that can exist among communities at a micro-level. Further, the government generally has little, if any research or data on the viewpoints of children and youth about their cities and communities. What we hope to offer in this initiative are ways to collect very localized data on the conditions for children and youth, as expressed by young people themselves. This includes methods

to gather disaggregated by age and gender to support better collaboration and decision making with local decision makers.

#2 – Climate Change

Children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global climate change. Many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ttend schools or live in communities that are located on unstable land, or in areas prone to natural disasters. Because of children's size and physical capabilities, they are at much greater risk of physical injury and death in the event of a natural hazard. According to the Children in a Changing Climate Coalition, over 65 million children were impacted by disasters in the 1990s, and du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is number was estimated to increase to over 175 million by the 2000s.

Yet we also know through research on the Asian Tsunami and other areas around the world that it is the community who are the first responders, and in many cases, this also includes children and youth. For example, after the tsunami of 2004, children and youth performed first aid, helped to create toys for children to support their mental health, and helped to reunite children with their familie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after Hurricane Sandy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and volunteer with the Rockaway Youth Task Force who had knocked on over 4,000 doors within 4 days after the disaster in the high-rise developments in their community to support the needs of immobile seniors, because in their words, "no one else was doing it." Our tools have been used in post-disaster situations to help improve schools, and we know they have potential to prepare children and youth for disasters. The scale of human need and the increased potential for disaster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requires civil society groups to be involved in creating solutions with governments to their most pressing problems.

#3 – Inequality

Poorly designed physical environments adversely impact children. Inequality in access

to services and inadequate livelihood opportunities also creates adverse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Many families do not have durable and secure homes with sufficient living areas, access to water, sanitation, and waste removal. Overcrowding and unsanitary conditions means children are adversely impacted by preventable diseases such as pneumonia and diarrhea, the two leading reasons children younger than 5 die around the world. Economic inequality is a global phenomena – it is not limited to what some refer to as “developing”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 nots” is increasing and is something that is serving as a source for great frustration around the world among youth in particular, whether living in the United States, Brazil or the Middle East.

#4 – Participation

The “youth bulge” is an asset to civil society and governments. We cannot ignore the protests going on all around the world today, largely peaceful protests by youth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ving and learning in face of inequality. Today’s youth population of 1.7 billion is the largest generation ever with youth between the ages of 10-29 comprising 35-40% of many countries. In Sub-Saharan and North Africa, about 40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under 15, and nearly 70 percent is under 30. Our tools provide one of many avenues for governments to learn the opinions of children and youth about services and programs, and we hope to support ways for young people and governments to work together through our process.

Children’s rights cannot be fulfilled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cluding young people themselves. The CRC guarantees children and youth the opportunity to share their opinions on matters that concern them. This includes children’s participation in decisions for their schools, community and cities. Despite the challenges facing children, youth and families in urban areas, each school and community has assets that can be built upon to improve learning and living conditions. Children, youth and parents should be partner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viewed not only as recipients

of services or markets, but also as assets for improving their schools, communities and cities.

Governance structures and processes for children and youth could be improved. Many cities have experimented with different ways to promote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One way is through child and youth councils, such as the one shown in this photograph from France. These child and youth councils meet on a regular basis with local decision makers to review and give input on policies that affect them. Youth councils are more common than child councils, but they are found all over the world in the Dominican Republic, the United States, and Spain (among other countries).

These councils can be an effective way to gather input from children and youth about their experiences in a city. However, sometimes children and youth are selected in ways that are not representative of all children and youth in a city. And child/youth councils often involve a few, hand-selected young people who typically are well educated and known as leaders in their community. For this reason, while child/youth councils are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y are also problematic because they may lack representativeness and the genuine participation of a broad range of young people. In addition, children and youth may not be developmentally prepared to comment upon an entire city, as their mobility is often limited to certain communities and neighborhood spaces within a larger urban area. For this reason, our research group has been leading an international action research project to develop new methods or ways to critically engage children, youth and their parents in improving the conditions that fulfill children's rights through other participatory tools and processes.

The Child Friendly Places Global Initiative

Since 2008, four primary organizations have been involved in supporting the a global, action research project to improve the conditions that fulfill children's rights. These include:

CERG – The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CERG), links university scholarship with the development of policies, environments, and programs to fulfill children’s righ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The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is housed within the Center for Human Environments of The Graduate Center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ERG has coordinated this global research effort and has a leading role in the resource kit development.

UNICEF – UNICEF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rough policies and program development and has supported this work in many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UNICEF Country Offices and National Committees, the Education Section and Innocenti Research Centre have all been involved in implementing this project.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The Bernard van Leer Foundation focuses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quality of children’s physical environments and their protection from violence and abuse. The foundation has provided intellectual guidanc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is initiative.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 Childwatch is a global network of institutions that collaborate in child research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hild rights and improving children’s wellbeing around the world. Researchers in many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the co-p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source kit. Two institutes in particular have played a leading role, the Institute Paulo Montenegro in Brazil and the Institute of Philippine Culture in the Philippines.

An Ecological and Systems Approach to Child Well Being

Slides 10–13 illustrate the model we are encouraging others to consider when developing child and youth friendly places, which is based on an ecological approach to well being and development. This model values a systems approach to assessing and improving the conditions that fulfill children’s rights, based on evidence and case studies, and collaborations across sectors such as health, education, social services, urban planning and governance. In this model, to improve the well being of children and youth, we

must recognize that:

- The current conditions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re a result of...
- Access to local services, programs and places for children and youth to live, grow, learn, play and develop...

For example, a child friendly community provides adequate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such as health clinics, family support programs and high quality schools. Housing should be affordable for families, safe for children to live in, and located on stable and safe land. The community should be safe for children to walk and play, with adequate spaces for recreation for all ages, genders and abilities. Children, youth and parents should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voice their opinions about matters that concern them on community councils.

- Which are determined by municipal and national level policies, budgets, planning and decision-making...

At the municipal scale, a child friendly city provides adequate waste disposal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children's health, has urban planning polic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children, youth and parents to voice their opinions on municipal councils. Local governments should ensure there is a child friendly justice system, including a child advocate or ombudsperson for child rights violations to be reported.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should also have an adequate budget and a plan of ac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That are shaped by larger social processes, international policie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culture, economy, politics and geography.

When the conditions are not favorable in schools or communities, this often means something is not working for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 at the municipal or national level. For example, if the quality of education is not adequate for children and youth in a community, this may be a result of many causes, such as: 1) a lack of adequately trained teachers, 2) classrooms that do not have enough light for children to learn, 3) a lack of student or parent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4) an inadequate

city budget for education, or 5) unfair national laws that preve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attending school.

It is often necessary to address multiple causes of an issue with different groups at the community, city,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In order to obtain services for children's needs, it is useful to collect information that explains what is really happening in schools and communities. The resources developed as part of this initiative provide a systematic strategy and child friendly approach for collecting the subjective opinions of community members about children's rights. This information can then be shared with decision makers to improve policies and programs for children based upon their everyday experiences.

The Child Friendly Places Resource Kit

Since 2008, the *Child Friendly Places Resource Kit* has been used and co-produced with the participation of approximately 15,000 children, youth and adults in over a doz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a diverse range of local community group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yon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s of children and youth about their schools, communities and cities is encouraged to use the *Child Friendly Places Resource Kit*. The resources can be used by **any country in the world**, regardless of its level of human development. Examples of groups that have used the resource kit include: Schools

-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 Child- or Youth-Led Groups
- Community Service Providers
- School Service Providers
- Government Representative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UNICEF
- Academic Researchers
- Urban Designers/Architects
- Urban Planners

The *Child Friendly Places Resource Kit* contains 8 activities that help children, youth, parents, education professional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to evaluate and improve

the conditions that fulfill children's rights. The resource kit is innovative because the symbols and graphics enable the participation of young children and adults who cannot read or write. They also make the process fun and engaging for children and youth. The intergenerational planning activities contained in this kit help community groups to recognize assets that support young people's well being, as well as to identify issues that can be improved to create better environments with children, youth and families. The resources can be integrated into school lessons, used in after school programs, facilitated by youth councils and child/youth-led groups, or integrated into community programs.

Slide 16 shows the process for supporting the creation of child friendly places. After using the assessment tools (Phase 1),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urrent conditions of schools and communities will be identified and summarized as data. After using the planning activities (Phase 2), groups will have specific goals for the initiative, and a plan with priorities for change with community input. After using the advocacy and action activities (Phase 3), the improvement plans are ideally implemented and changes made to children's everyday lives, often with the support of local authorities. At the end of the process (Phase 4), the outcomes are documented and reflected upon to help sustain and replicate the process, and to consider new ideas for improving the conditions that fulfill children's rights in schools, communities and cities. Ideally groups would repeat the assessment every two years to monitor the conditions over time.

Child Friendly Places Indicators

There are six broad topic areas that can be evaluated for schools and communities. The resource kit is unique because it explicitly addresses the quality of physical environments for children and families (such as nature/ecology and housing), as well as their health, safety and education. These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testing the tools in over a dozen countrie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hild rights experts, an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over 500 academic and policy manuscripts.

1. Play and Recreation – This evaluation topic examines access to a diversity of spaces

for play and recreation, equal opportunities for play and recreation for girls and boys, an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safety of play areas, free time, and access to play and recreation materials, among others.

2. **Nature and Ecology** – This evaluation topic examines access to nature, air quality, garbage and waste disposal, protection from weather, the availability of green spaces such as parks and community gardens, community cleanliness, and disaster preparedness and planning, among others.
3. **Housing/Learning Environments** – This evaluation topic examines the qua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within two settings. Within communities, the quality and affordability of housing is the focus, such as access to toilets with water, electricity and wash facilities, adequate space for living, and protection from weather and pests, among others. Within schools, the degree to which classrooms and the school building support teaching and learning are examined. This includes schools that can be accessed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ess to learning resources and spaces such as a library or laboratory, separate toilets for girls and boys, and comfortable school furniture, among others.
4. **Participation** – This evaluation topic examines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parent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for their schools and communities,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participation in projects or programs to improve schools and communities, and an adequate budget for children's needs within the municipality, among others.
5. **Safety and Protection** – This evaluation topic examines the safety of schools and communities, such as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drugs and abuse, the presence of teasing and bullying, respect for diversity, cultural and religious tolerance, safe public transportation, and children's independent travel in the community, among

others.

- 6. Health and Social Services** – This evaluation topic examines access to health and social services, such as community or government clinics, emergency care, child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are support, access to information about reproductive health, and protection against diseases, among others.

Slide 18 provides an example of the evaluation topics and items for “Play and Recreation” in communities. The groups that can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are listed on the top row and include: children aged 6–12; youth aged 13–18; parents of infants and children of all ages under 18;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Each evaluation item has a corresponding image to help children and adults who cannot read to participate. A similar structure exists for schools, but includes education professionals in the process, such as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Each evaluation topic and item also has the relevant Articles listed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are addressed through the assessment. Groups implementing the process can select evaluation topics and items most appropriate for their goals and local setting from a menu of options, and can develop new evaluation items of interest. The goal is to help community members compare the subjective opinions about the current conditions for children across the generations to understand common problems, as well as the unique needs of particular groups.

Children, youth and adult participants are also empowered to develop their own assessment indicators through the use of drama, tours and drawing. This is important to ensure the local relevance of the assessment, as well as to ensure the needs of children and youth are adequately addressed through the process. For example, in India a working children’s group called Shaishav added a total of 36 indicators, including access to play materials, musical instruments and a first aid kit in their recreation spaces.

Child Friendly Places Tools

The tools are designed to be adapted for the local context and offer flexible options for implementation. For example, in the “Evaluate” activity there are different tools that can be used: a booklet tool, in which the image is dominant, which is helpful for young children and adults who cannot read; and a survey tool that can be used by youth and other literate adults. We have also developed flexible ways to immediately tally the results using large charts and image cards that reflect each evaluation item, such as those being taped onto the chart in this photo by a teacher in Haiti.

When designing the resource kit we understood that in different contexts it might be difficult to obtain materials for the activities. UNICEF Sudan helped us to think through ways to conduct the activity using local objects, such as stones and chalk. In this slide you can see the creative ways the tools were adapted using a different rating system in which the cup is empty (never true), half-full (sometimes true) and full (mostly true). In addition, the Coordinating Committee hired a local artist to make the evaluation image cards more appropriate for the culture. The facilitators integrated drama, music and the creative arts to offer other ways for participants to share their ideas.

Slide 22 shows an example of the results chart template used to tally the findings with participants so they are also involved in analyzing the data. The goal is to support groups to collect the information in a systematic and consistent way so the data can be used for many purposes with a high degree of validity.

Slide 23 provides an example of the child friendly graphic symbols developed by youth in East Harlem, New York City in the USA to display the results using average ratings, which are useful for comparing the different opinions across generations. Average ratings are also useful for ranking priorities and can also be calculated to understand an overall score for a school or community for all the groups combined.

Example of Outcomes

The community and school assessment results can be integrated into existing plans

for municipalities, communities, schools or organizations, or used to develop new plans where none exist. The results of the school and community assessment add value to thes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es by collecting and sharing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children and youth, who are often excluded from such processes. While we are currently evaluating the range of outcomes that can be generated through this process, early evidence suggests the process can have an impact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t different scales.

Individual Outcomes – There is evidence that the process impacts individual participants or groups (such as children, youth, parents, facilitators, etc). This might include improved or enhanced skills or knowledge, as well as changes in behavior or values. We have found it particularly enables participants to learn about children’s rights as it applies to their everyday lives in their schools and communities, in addition to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cross the generations.

School Outcomes – We have also found evidence that the process can impact schools (such as improved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the creation of new ways to make school decisions, and improved school infrastructure).

Community Outcomes – We also know that the process can impact communities (such as improved access to safer playgrounds for children, and new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etc).

Municipal Outcomes – While it may be too soon to tell the true impact at the municipal scale, there is evidence that the results of the school and community assessments have been integrated into municipal Plans of Action for children, and there has been the integration of children’s priorities into city plans.

Policy Outcomes – Finally, we have also seen the integration of the school and community

assessment tools into policies for cities, with new guidelines for accreditation and awards given to municipalities that want to be considered a child friendly city by UNICEF as a way to demonstrate their country's commitment to fulfill children's rights.

Case Studies

To make these outcomes clearer I will provide a couple of examples. In a child friendly community initiative in the USA, the assessment revealed the number one priority for improvement as expressed by children and youth was to increas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only one of several countries that has not ratified the CRC, these young people felt compelled to raise awareness around the issue. The youth facilitating the assessment process created a film about children's rights and what they mean in their community in Harlem, New York City. They then shared the film with over 200 youth groups in the New York City area, and posted it on a blog they created that has reached over 3,000 people to date.

In Brazil over 80 communities participated in the use of the resources in Rio de Janeiro and Sao Paulo,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outcomes, such as improved access to play spaces and opportunities in the poorest communities, and the creation of new pedestrian crossings. Some groups also influenced the municipal plans for children and youth by integrating their priorities into the city plan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Planning.

A school in the Philippines used the resource kit to prepare for natural disasters with the input of children, youth, parents,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The evaluation highlighted the school's assets such as access to electricity, a school vision that guides how it functions, access to nature around the school and spaces for children to be with friends. The school's priorities for change included the condition of its building, learning why disasters happen, and separate toilets for girls and boys (among others). With small seed funding, the children and parents decided to purchase a drainage system to get rid of flooding around the school during the rainy season.

A school in Haiti used the resource kit after the earthquake in 2010 to improve the

design of temporary schools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in emergency contexts. Pairs of youth and teachers facilitated the evaluation process together during school with 172 children, youth, parents and teachers. The evaluation demonstrated the school had many assets related to the way children and teachers respect and work with one another. Priorities for improving the school included access to electricity and the Internet, more resources for learning, safe spaces for play, free time for play during school, and better toilets (among others). With small seed funding, the school decided to purchase a generator to extend the school day, host community events to increase income for the school, and to improve learning opportunities with audiovisuals that require electricity.

In Mumbai, India the 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s integrating the results of the school and community assessments with over 2,000 community members into the People's Plan for the M-Ward, a plan that shares the assets and needs of community residents living in slums. The People's Plan will then be integrated into the Mumbai Redevelopment Plan that will guide the way the city grows and develops over the next 30 years. Integrating data on the conditions of children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city budgets and services for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Challenges in Creating Child Friendly Places

While we can celebrate these achievements,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some of the challenges in doing this type of work.

Managing Expectations. Concerns about how to best manage expectations for real change, as implied by the evaluation items, is something that may be raised by participants during the process. Many communities and schools face serious and difficult challenges that require government resources or support from other organizations to change. However, schools or communities can improve many of the evaluation items on their ow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evaluation results can support both types of actions, as both are necessary to create child friendly places.

Monitoring Power Differences in Stakeholder Relationships. In each community or school setting there are differences in power and authority. In the case of communities,

some groups may have more power because of their relationship with local leaders or government representatives. Women and girls may not be included in community processes, and certain groups may not value children's opinions. In the case of school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anticipate the power difference among teachers, students, and school administrators. Because school administrators have such a powerful influence on the decision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students and teachers may be reluctant to speak truthfully about their school. In addition, teachers may not be comfortable facilitating an evaluation that looks critically at their instructional style and discipline measures. We anticipated these power dynamics in designing the resource kit, and have developed strategies and suggestions to minimize these power differences in each activ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consider the best way to conduct the assessment within a school and community setting in a way that enables all groups to participate in a respectful and meaningful way.

Accountability and Use of the Child Rights Data. While schools and communities can benefit from collecting and reflecting upon their own situation through the process, the lack of capacity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s to act on this information poses a challenge for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data in many contexts. For example, if the results are shar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dvocate for school needs, government representatives may or may not agree to implement changes based on this information. Sometimes communities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Empowering communities and schools to conduct and act upon the evaluation results themselves has the potential to build bottom-up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into local government systems. For example, accountability is important at the scale of the school – by holding the school directors, teachers and student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 but also at the scal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holding governments accountable for the fulfillment of children's rights. We recommend groups designing an initiative consider important allies to include in the process, those champions within local governments who are willing to support and act upon the views and opinions of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In many cases, bringing the generations together to discuss the conditions for children in a school or community may be challenging. Sometimes this process is difficult because adults and children have different stereotypes about one another that can prevent genuine dialogue from happening. In other cases, it may not be considered appropriate for children to voice their opinions to adults for cultural reasons. It often takes time for adults and children to get to know one another, and to learn how to work together in participatory groups.

New Research Directions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positive outcomes encourage us to share these resources with others and to continue our action research project with additional global partnerships. Our goal is to continue to build a body of evidence around this process and to ensure the broadest use of the resource kit as possible. We are currently creating an interactive, multi-lingual website for groups to download and use the tools, and to provide an educational platform to share tips and experiences from the process. We are also seeking funding to transform the tools for use with mobile phones, applications and other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ipad.

Slide 31 shows a mock-up of what the tools might look like with an ipad. In this mock-up, children push or click on the “volume” button to hear the survey statement read out loud to them. They then select their evaluation of the child right by selecting from the green, yellow and red buttons that symbolize “yes”, “sometimes,” and “no.” This can be completed with small groups of children or individually. Children advance through the survey using the arrow buttons and can record a brief comment or story related to the statement by touching the “recorder” button. The data is recorded into a spreadsheet and the results are shared back to the children at the end of the assessment in child-friendly visual formats (such as through animation). Teachers can facilitate dialogues with children about the results to discuss their overall evaluation of children’s rights in their community.

I hope by sharing this global action research project and the practical tools they have

generated will inspire their use in Korea to support your existing programs and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e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and to collaborating with interested groups among the delegation of organizations represented here today.

I hope I also demonstrated the potential of democratizing research so that communities are empowered to represent their own reality in ways that helps them to advocate for their needs, and to work together to solve common problem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their governments.

For now, the draft resource kit can be viewed and downloaded by anyone for free on the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website at: <http://cernyc.org/child-friendly-places/>. The future site will be housed at <http://childfriendlyplaces.org> and will be up and running in several months in English, Portuguese, and Hindi, and hopefully one day in Korean!

아동·청소년 친화적 공간

Pamela Wridt / 아동환경연구소(CERG)

서론

오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배울 수 있게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배상률 박사님과 주최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지역사회’라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도시란 무엇일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도시와 다르지는 않을까?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거나 불행할 때, 그 지역사회/도시의 모습은 어떠할까?”

저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제가 이끌고 있는 아동환경연구소(CERG: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의 계획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 친화적 공간 만들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도시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지역사회와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 열망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한 배에 올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배우고, 각자의 분야에 관한 중요한 관점들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공간 창출을 위해 CERG가 진행해 온 세계적 행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 연구 계획은 시민사회 집단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도시의 아동 인권 환경을 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기법을 개발할 목적으로 2008년 전세계 십 수개 국 파트너들과 손잡고 시작된 계획입니다. 우리의 큰 목표는 세대를 넘어선 협력과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와 절차들을 개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과 성인들이 아동·청소년 친화적 공간을 만들고 유지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동 친화적 공간은 지역 계획 및 개발 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고려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지역사회, 도시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0-18세 사이 아동 및 청소년의 웰빙과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친화적 공간의 중요성

우리의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과 학습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세계적 이슈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1 - 도시화

도시지역에 사는 전세계 아동의 대다수는 안전과 웰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세계아동현황보고서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Report)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10억 명의 어린이들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비공식 주거지나 빈민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는 2020년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 주거지의 환경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거나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지도에 이러한 지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조차 존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부가 도시 지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사이의 불평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연구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본 연구계획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고도로 지역화된 자료를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표현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의사결정자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연령 및 성별로 분화된 자료를 모으는 기법들이 포함됩니다.

#2 - 기후변화

아동들은 전세계적 기후 변화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불안정한 지역 또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 크기와 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기후변화에 처한 아동(Children in a Changing Climate) 연합체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6,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반면,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 수치가 1억 7,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쓰나미 사례 및 기타 지역에서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자연재해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것이 지역 사회이며, 많은 경우 여기에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쓰나미가 발생한 후 아동과 청소년들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장난감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 기여하고, 이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저는 단 4일만에 지역에 위치한 고층건물 가구 4천 곳 이상을 찾아가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운 로커웨이 청소년 전담반(Rockaway Youth Task Force)의 자원봉사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한 일의 동기에 대해 “아무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도구들은 재난이 지나고 난 후의 상황에서 학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재난 대비를 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의 필요가 증가하고 자연재해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사회가 정부와 협력하여 가장 긴박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 불평등

잘못 설계된 물리적 환경은 아동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생계유지 기회가 충분치 않은 것 또한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게 불리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가족들이 충분한 생활공간, 물, 위생, 쓰레기 처리 시설이 갖춰진, 견고하고 안전한 집에 살지 못합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과밀한 환경은 어린이들이 폐렴, 설사와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는 전세계 5세 이하 아동 사망의 주 원인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로 불리는 국가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브라질, 중동은 물론 전세계 청소년들이 커다란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 참여

“청년저항(youth bulge)”은 시민사회와 정부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운동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평등에 맞서 삶의 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는 청년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입니다. 현재의 청년 인구 17억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큰 규모이며, 많은 국가들에서는 10-29세 사이의 청년이 인구의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약 40%가 15세 이하이며, 30세 이하 인구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들은 정부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 중 하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과정들을 통해 젊은이들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젊은이들 자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학교, 지역사회, 도시에 관한 의사결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도시지역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와 지역사회는 학습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부모는 지방 정부 및 민간부문의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서비스 또는 시장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도시를 개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정운영 체계와 과정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프랑스의 모습과 같은 아동 청소년 협의회를 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 협의회는 지역의 의사결정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자산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동 협의회보다는 청소년 협의회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전세계 많은 국가 중에서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스페인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도시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선발되는 방식이 해당 도시 내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협의회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지도자격으로 알려져 있는, 교육수준이 높은 소수의 선택 받은 젊은이들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협의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임과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대표성이 결여되고 다양한 젊은이들의 진정한 참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동반경은 종종 커다란 도시지역 전체에 비하면 특정 지역사회나 근린공간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도시 전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아직 발달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연구 그룹은 아동, 청소년 및 부모들이 다른 참여적 도구 및 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환경 개선에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기법 또는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동 친화적 공간을 위한 세계적 행동계획

2008년부터 4개 조직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행동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CERG - 아동환경연구소(CERG)은 대학의 장학금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환경 및 프로그램 개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CERG는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센터의 인간환경센터(Center for Human Environments)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계적 연구 노력을 조직화하고 관련 리소스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UNICEF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UNICEF의 국가사무소와 국가위원회, 교육국과 이노센티연구소(Innocenti Research Centre)는 이러한 프로젝트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반 리어 재단 - 버나드 반 리어 재단(Bernard van Leer Foundation)은 아동의 초기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물리적 환경의 질과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이와 관련된 계획들에 지적 도움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 국제연구 네트워크 - 아동인권 국제연구 네트워크(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는 전세계 아동의 권리 증진과 웰빙을 위한 아동 연구 분야에서 협력하는 전세계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연구진들이 리소스 공동 개발 및 시행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파울로 몬테네그로 연구소(Institute Paulo Montenegro)와 필리핀의 필리핀문화연구소(Institute of Philippine Culture)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웰빙에 대한 생태적, 시스템적 접근

슬라이드 10 - 13에 소개된 것은 아동 및 청소년 친화적 공간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모델로서, 이는 웰빙과 발달에 대한 생태적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모델은 증거 및 사례연구, 보건, 교육, 사회복지, 도시계획, 국정운영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웰빙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현재의 환경은 ...의 결과이다.
- 아동 및 청소년들이 살고, 자라고, 배우고, 놀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한 접근성

예를 들어,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는 병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질 높은 학교 등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는 가족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입수 가능해야 하며, 아동이 살기에 안전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걷고 놀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모든 연령, 성, 능력에 맞는 충분한 오락공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부모들은 지역사회의 협의회에 자신과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이는 지방자치제 및 국가 수준의 정책, 예산, 계획 및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짐

지자체 수준에서, 아동 친화적 도시는 환경과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쓰레기 처리역량을 제공해야 하고, 아동과 그 가족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아동, 청소년 부모들이 지자체의 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아동 권리 위반을 보고할 수 있는 아동들의 대변인 또는 옴부즈만을 포함하여 아동 친화적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및 중앙정부는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행동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위의 사항들은 그보다 큰 사회적 절차, 국제 정책 및 조직, 문화, 경제, 정치, 지리 등에 의해 형성됨

학교나 지역사회의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이는 종종 지자체 또는 국가 수준에서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1) 충분한 훈련을 받은 교원 부족, 2) 아동의 학습을 위한 충분한 조명을 갖추지 못한 교실, 3) 의사결정에 있어 학생 또는 부모의 참여 부족, 4) 시의 교육예산 부족, 5)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국법.

어떠한 사안의 원인이 된 다수의 요소들을 지역사회, 시, 국가, 국제 수준의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동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자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적 전략과 아동 친화적 접근방식을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의사결정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친화적 공간 리소스 키트

아동 친화적 공간 리소스 키트(Child Friendly Places Resource Kit)는 전세계 십 수개 국가의 다양한 지역 지역사회 집단과 국제 비정부조직에 속한 약 15,000명에 달하는 아동, 청소년, 성인의 참여로 2008년 공동 제작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와 지역사회, 도시에 대해 갖는 견해를 이해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동 친화적 공간 리소스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리소스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학교 | ■ 비정부 조직 |
| ■ 지역사회 기반 조직 | ■ UNICEF |
| ■ 아동 또는 청소년 주도의 집단 | ■ 학술 연구자 |
|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 ■ 도시 설계/건축가 |
| ■ 학교 서비스 제공자 | ■ 도시 계획가 |
| ■ 정부 대표 | |

아동 친화적 공간 리소스 키트는 아동, 청소년, 부모,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8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리소스 키트가 혁신적인 이유는 부호와 그림을 통해 읽거나 쓰지 못하는 어린 아동과 성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재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 키트에 포함된 세대간 계획 활동은 지역사회 집단들이 젊은이들의 웰빙을 뒷받침해주는 자산들을 인식하고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포함된 자료는 학교 수업에 사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활용하거나, 청소년 협의회 및 아동/청소년 주도 집단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통합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16은 아동 친화적 공간 창출을 뒷받침하는 절차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가 도구(단계 1)를 사용하고 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갖는 현 상황의 장점과 단점이 요약된 데이터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계획 활동(단계 2)을 사용하고 나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의 목표, 변화의 우선순위가 설정된 계획을 갖게 됩니다. 지지 및 행동 활동(단계 3)을 사용하고 나면 실행 계획이 이상적으로 실행되어 아동의 일상적인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여기에는 종종 지역 당국의 지원이 따릅니다.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단계 4) 결과가 문서화되고 이를 반영하여 절차를 유지하거나 재현할 수 있으며, 학교, 지역사회, 도시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동 친화적 공간 지표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본 리소스 키트의 특징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물리적 환경(자연/생태, 주거 등)의 질을 비롯해, 이들의 건강, 안전, 교육 등에 대해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아동 권리 전문가들의 참여와 500개 이상의 학술 및 정책 자료 문헌 검토를 통해 십 수개 국 이상에서 실시된 시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1. 놀이와 오락 - 이 평가 주제는 다양한 놀이 및 오락 공간에 대한 접근성, 남아와 여아, 장애가 있는 아동의 놀이 및 오락에 대한 평등한 기회, 놀이 구역의 안전, 자유시간, 놀이 및 오락 자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평가합니다.

2. 자연과 생태 - 본 평가 주제는 자연에 대한 접근성, 공기의 질,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기후로부터의 보호, 공원 및 근린 정원 등의 녹지공간의 가용성, 지역사회의 청결성, 재난 대비상태 및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3. **주거/학습 환경** - 본 평가 주제는 두 가지 상황에서 기존 환경의 질에 대해 평가합니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물이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 전기, 세탁시설, 충분한 생활 공간, 기후와 해충으로부터의 보호 등 주거의 질 및 지원성(affordability)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과 교수를 뒷받침하는 교실과 학교 건물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과 실험실 등 학습자료 및 공간에 대한 접근성,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편안한 학교비품 등이 포함됩니다.
4. **참여** - 본 평가 주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학교 및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의 참여, 지방자치제 내에서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등을 평가합니다.
5. **안전과 보호** - 본 평가 주제는 아동의 폭력, 약물, 학대에 대한 노출 정도, 괴롭힘과 학교폭력의 존재,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 및 종교적 관용도, 안전한 대중교통,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동의 단독 이동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6. **보건 및 사회복지** - 본 평가 주제는 지역사회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병원, 응급실, 아동 발달 및 정신보건 지원, 생식보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질병에 대한 보호 등을 평가합니다.

슬라이드 18은 지역사회 내의 “놀이 및 오락”에 관한 평가 주제 및 항목의 예를 보여줍니다.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들이 맨 윗줄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8세 이하 유아 및 아동의 부모;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각각의 평가 항목은 이에 상응하는 그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가 존재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교사, 학교 행정가 등 교육 전문가들이 절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평가 주제와 항목에는 평가를 통해 다루어진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행하는 집단들은 메뉴 옵션에서 자신의 목표와 지역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평가 주제와 항목을 선택하고 관심 있는 새로운 평가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목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세대를 넘어서 아동에 관한 현재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비교하여 공통의 문제와 특정 집단의 독특한 필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인 참가자들은 드라마, 순회, 그리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평가 지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평가의 지역 관련성을 담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가 충분히 다루어짐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샤이샤브(Shaishav)라 불리는 인도의 어린이 노동자 집단은 오락 공간에 비치된 놀이 자료, 악기, 응급처치 키트 등을 포함해 총 36개의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아동 친화적 공간 도구

본 도구는 지역적 맥락에 맞는 유연한 실행 옵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주를 이루는 소책자 도구는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동과 성인에게 도움이 되고, 설문조사 도구는 청소년과 글을 읽을 수 있는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진에 나온 아이티의 선생님이 표에 붙인 것과 같이 대형 차트와 각각의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그림 카드를 사용해 즉각적으로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들을 개발했습니다.

본 리소스 키트를 개발할 때, 우리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세프 수단에서는 우리가 돌과 분필 등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물체를 활용하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빈 컵(전혀 그렇지 않다), 반이 찬 컵(약간 그렇다), 가득 찬 컵(거의 그렇다)처럼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도구들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를 고용하여 지역 문화에 더욱 적합한 그림 카드가 무엇인지 평가했습니다. 또한 촉진자들은 드라마, 음악과 창의적인 예술을 조합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슬라이드 22는 참가자들이 찾아낸 내용을 기록하여 이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데에 사용된 결과 차트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의 목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 자료가 높은 타당성을 갖고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23은 평균 평가점수를 활용해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뉴욕 이스트 할렘(East Harlem)의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아동 친화적 기호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세대를 넘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평균 평가점수 체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모든 집단을 조합하여 어떠한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점수를 이해하는 수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예

지역사회 및 학교 평가의 결과는 지방자치제, 지역사회, 학교, 조직에 대한 기존 계획에 통합하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 평가의 결과는 절차에서 종종 제외되곤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계획 및 개발 과정에 가치를 더해줍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의 자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아동과 청소년, 가족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결과물 - 이러한 과정이 참가자 개인 및 집단(어린이, 청소년, 부모, 촉진자 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선되거나 증진된 기술 또는 지식, 행동 또는 가치관의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특히 참가자들로 하여금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적 생활에 적용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세대 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학교의 결과물 -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학교에도 영향을(교육 자원에 대한 개선된 접근성, 학교의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창출, 개선된 학교 인프라 등)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지역사회의 결과물 -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지역사회에도 영향(아동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에 대한 개선된 접근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수준의 결과물 - 지자체 수준의 진정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일 수도 있으나, 학교 및 지역사회 평가의 결과들이 아동을 위한 지자체의 행동계획에 반영되고, 도시 계획에 어린이의 우선순위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책적 결과물 -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교 및 지역사회 평가 도구가 도시에 대한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동 친화적 도시로 인정받기 원하는 지자체를 위한 유니세프의 새로운 지침과 인증제도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입증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이러한 결과물들을 좀 더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이 이야기한 개선의 최우선순위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대였습니다. 미국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여러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평가 과정을 이끌었던 청소년들은 아동의 권리와 이것이 뉴욕의 할렘의 지역사회에서 의미하는 바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영화를 뉴욕시에 있는 200개 이상의 청소년 집단과 공유했고, 영상이 올라간 블로그에는 지금까지 3천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에 위치한 8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했으며, 빈민가에서 놀이 공간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 개선,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한 종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몇몇 집단들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교육부와 계획부의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 계획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학교는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 학교 행정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연재해 대비에 본 리소스 키트를 활용했습니다. 평가를 통해 전기에 대한 접근 가능성, 학교의 기능과 비전, 학교 주변 자연에 대한 접근성, 아동들이 친구와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 등 학교가 가진 자산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가 우선시한 변화요소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건물 환경, 재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학습, 남녀 화장실의 분리 등이었습니다. 아동과 부모들은 적은 규모의 종자기금을 마련하여 우기에 학교 주변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배수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티에 위치한 한 학교는 2010년 지진이 일어난 후 본 리소스 키트를 이용해 응급 상황의 맥락에서 임시 학교의 설계와 교육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짝을 이루어 평가 과정을 촉진했고, 총 172명의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평가를 통해 이 학교가 아동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에는 전기와 인터넷, 학습자료 확충, 안전한 놀이공간, 학교에 있는 동안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 더 나은 화장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학교도 종자기금을 마련하여 학교 가동시간을 늘려줄 발전기를 구매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회 이벤트를 개최하고, 전기를 활용해 음향/영상학습 기회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 뭄바이에 있는 타타사회과학원(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은 2천 명 이상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한 학교 및 지역사회 평가의 결과들을 빈민가 주민들의 자산과 필요를 공유하고자 하는 계획인 M-워드 인민계획(People's Plan for the M-Ward)에 반영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계획은 앞으로 30년 동안의 도시 성장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줄 뭄바이 재개발 계획(Mumbai Redevelopment Plan)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동들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자료는 아동,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 예산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적 공간 창출의 애로사항

이러한 성과들에 기뻐하는 한편, 이와 같은 유형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대의 관리. 평가 항목에도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평가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 기대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가자들이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학교들이 변화를 위해 정부의 자원이나 다른 조직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평가항목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활동 모두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동 친화적 공간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 있어 힘의 차이를 주시하는 것. 각각의 지역사회 또는 학교 환경에서는 힘과 권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역사회의 경우, 어떤 집단이 지역의 리더 또는 정부 대표자들과의 관계로 인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들은 지역사회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집단은 아동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 학교 행정가 사이의 힘의 차이를 이해하고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행정가들은 학습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 대해 진실된 생각을 말하기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 방식과 훈육 수단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불편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 리소스 키트를 설계하면서 이러한 권력의 역학을 예상했고, 이에 각각의 활동에서 힘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제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든 집단들이 존중 받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권리 자료에 대한 책임성과 활용. 학교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 사용 역량과 책임성이 부족하면 다양한 맥락에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알리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공유하는 경우, 정부 대표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변화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의 경우 정부와 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정부 시스템의 상향식 감시체계를 만들어내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수준에서는 교내 이사회, 교사,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성이 중요하며, 교육부 수준에서는 정부가 아동 권리 실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우리의 권고는 아동, 청소년, 가족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꺼이 지원하고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중요 인물을 평가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 많은 경우, 다양한 세대를 모아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의 아동을 위한 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인과 아동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어린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과 아동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에는 종종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연구방향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본 리소스 키트를 널리 공유하고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도록 고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본 평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구축하고 리소스 키트가 최대한 널리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평가도구를 다운로드해 사용하고, 평가 과정에 대한 팁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다국어의 양방향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도구를 스마트폰, 아이패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로 이식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31은 아이패드용으로 개발될 수 있는 평가도구의 모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동이 “음량” 버튼을 누르거나 클릭하면 설문 내용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아동 권리에 관한 평가항목에 대해 각각 “예”, “보통”, “아니오”에 해당하는 녹색, 노랑, 빨강 버튼을 눌러 답을 하게 됩니다. 이는 소집단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고, “녹음기” 버튼을 누르면 평가항목과 관련된 간단한 의견이나 이야기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고, 평가가 끝나면 아동 친화적인 형식(애니메이

선 등)으로 결과를 아동에게 보여줍니다. 교사는 그 결과에 대해 아동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아동 권리 평가에 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행동연구 프로젝트와 실용적인 평가도구가 한국에서도 사용되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 관심이 있는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지역사회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부와 협력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연구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재 아동환경연구그룹 웹사이트(<http://cernyc.org/child-friendly-places/>)에서 리소스 키트 초안을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 개월 내에 웹사이트가 완성되면 <http://childfriendlyplaces.org>을 통해 영어, 포르투갈어, 힌두어로 운영될 예정이며, 언젠가는 한국어 웹사이트도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션 2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청소년 특별주제발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은 과연 행복한가요?**

이 정 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제9대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청소년특별주제발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은 과연 행복한가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집단 No.1 ‘대한민국 초딩’들

직장맘(워킹맘), 전업맘(전업주부) 가릴 것 없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2013년 현재 가장 바쁘고 분주한 집단을 꼽으라면 나는 단연 초등학생들을 뽑고 싶다. 특히 교육특구(대치동·목동·중계동 학원가나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본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강남학생들의 하루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의 하루는 오늘도 학교와 학원, 과외를 순회하는 일정 속에 숨 쉴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 차를 타고 영어, 수학학원으로 이동한다.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카데미맘(Academy와 Mom이 합쳐진 신조어로 학원가 커피전문점에서 모여 사교육 관련 정보를 나누는 엄마, 커피맘이라고도 부른다.)들도 나를 공부에 바쁘다. 커피맘들의 학습목표는 학원가 강사의 수준을 품평하며 학원가에서 가장 우수한 일타강사(학원가 스타강사, 역대 연봉을 자랑한다.)를 찾아 내 아이가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것. 학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부모 설명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커피맘들의 현장체험학습이요, 인터넷에서 각종 입시정보를 섭렵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과제다. 학원 교습시간이 10시로 제한되어있기에 학원수업은 막을 내려도 학생들의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 곧장 집으로 돌아가 과외 교사에게 부족한 과목을 보충받고, 학원 숙제를 마친 후 12시가 넘어야 겨우 잠자리에 든다. 월급쟁이 샐러리맨은 평일에 아무리 야근과 회식이 넘쳐도 주말에는 대부분 쉴 수 있다. 허나 우리의 학생들은 주말에도 늦잠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말이 더욱 바쁘기까지 하다. 체육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주말에 삼삼오오 친구들과끼리 전문 지도자에게 체육 과외를 받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얘기고, 당일 혹은 1박 2일로 여기저기 체험학습 떠나는 어린 무리들은 주말에 박물관이나 관광명소만 가 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집단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새로운 출세 사다리, 산후조리원에서부터 그들의 인맥 형성은 시작된다.

영어유치원 → 사립초등학교 → 국제중학교 → 자사고(전통의 민사고, 최근 뜨고 있는 하나고) 혹은 특목고(외고는 대원이나 용인외고, 과학고는 한국과학영재고와 서울과학영재고를 으뜸으로 쳐준다.) → SKY(이왕이면 서울대. 그중에서도 경영학과나 의과대학) 혹은 아이비리그 학부 졸업 → 해외 대학원 졸업 후 삼성을 비롯한 국내 굴지 대기업 입사나 사법, 외무고시 패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립외교원 외교아카데미 입학)로 이어지는 21세기 신(新) 대한민국 출세사다리(엘리트코스)는 과거 KS(경기도-서울대) 코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해졌다. 최근에는 강남의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아이가 태어난 직후 특정 산후조리원에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출소 후 이어지는 산후조리원 동기모임에 아이들을 동행하여 그들만의 고급(?) 인맥을 형성하는 출세사다리의 시발점은 이미 신생아시기로부터 앞당겨진 듯하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필수로 여겨졌던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3요소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할머니의 운전 실력, 동생의 희생, 학생의 체력까지 6대 요소가 갖춰야 대입에 성공한다는 우스개 소리마저 돌고 있다. 우스개 소리지만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교육 현실인 듯하다.

요즘에는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도 힘들다. 창의적체험활동, 입학사정관제, 주5일제 전면도입 등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학업은 기본이요, 리더십과 봉사정신, 전공에 관련한 활동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한다. 마치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는 것처럼 말이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 잠재력과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엄마사정관제(자녀의 스펙관리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좌우)로 변질되었고, 올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될 ‘자유학기제’ 역시 부모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참여 학생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는 ‘아빠학기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한참 기말고사 기간인 이 시점에도 학생들의 책상 위 교과서는 오늘도 빠르게 넘어가고 있을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과서가 아닌 학원 문제집이나 참고서 종이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시절이 행복했다는 대학생? ‘지금 여기 행복’을 말한다!

고교 3년간, 아니 12년 동안 진행된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은 과연 행복할까? 끝이 보이지 않았던 입시경쟁의 기간 동안 수능만 끝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며 애써 자위했던 학창시절을 끝낸 대학생들은 지금 행복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의외로

많은 대학생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주변을 돌아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학창시절이 더 행복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존재한다. 공부만 열심히하면 교사로부터 인정받았고, 먹여주고 옷 사주는 부모님 덕분에 스스로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지 않았던 그 때가 더 좋았다고. 학점, 취업, 인간관계 등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숙제들을 홀로 감당하기엔 난 아직 어리다고, 그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동고동락을 함께한 ‘친구’가 있어 입시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읽는 이에 따라 고개를 끄덕일수도, 가우뚱할수도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겐 권리도 의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 된 후기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마냥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말한다. 중고교 6년만 고생하면 나머지 60년이 편해질거라고. 대학만 가면 너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그러나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고생한다고 나중에 편하게 살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어차피 예상하지 못할 미래라면 지금 즐거우면서도 나중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 어른들이 이끄는 지금의 사회와 우리들이 이끌어 나갈 미래 사회의 모습은 천차만별일텐데. 학벌을 잣대로 출세가 정해지던 못된 관습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텐데 말이지.

‘유예된 행복’이 아닌 ‘지금 여기 행복’을 외치고 싶다. 혹여 60년이 불행해진다 손 치더라도 지금 6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딱 한 번의 청소년 시기니까. 6년이 즐겁고 행복하면 나머지 60년도 즐겁고 행복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른이 된다고 가슴 벅찬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청소년 특별주제발표



청소년이 말하는 행복

강영훈

(청소년기자단원)

청소년특별주제발표

청소년이 말하는 행복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영훈 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어 돈벼락을 맞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햇살 따스한 오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거니는 모습을,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룬 본인의 모습을.. 그만큼 행복이란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10대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의 대표로써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혹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큰 물질적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이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순간의 만족감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청소년들은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몇 가지 예로

저희 청소년들은 성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 엄청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고민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던 친구가 저의 응원과 격려로 인해 활기를 되찾았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며칠 간 친구들과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해서 교내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행복은 바로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학교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졸음이 와서 서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 야자 감독관은 저희 담임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서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 포스트잇에 작은 메모를 써서 제 책상에 붙여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요즘 시험기간인데 힘들지? 청소도 꼬박꼬박 잘하고 성실한 모습이 예쁘구나. 힘내 선생님은 항상 널 응원 한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난 후 학업에 지쳐있던

제 몸과 마음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저희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고 싶다면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고 좌절을 할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한 번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성장할 것이고, 저희가 받은 만큼의 그 값진 정성과, 수고와 노력들을 저희 다음세대의 청소년들에게 똑같이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는 많은 생각과 꿈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 가치들을 꿈꾸고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질 수도 없는 시기라 그 믿음들 옆에는 항상 불안감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가능성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꿈과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 과정에만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안감이라는 것은 어느새 저 멀리 가있겠지요.

일시적인 만족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저희의 내면을 성숙시켜주지 못할 것이며, 정신적인 안정감과 꿈에 대한 확신이 다른 모든 요소들보다 저희에게 최고의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연구**

성 은 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연구

〈요 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행복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미래 국가의 주역으로써 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을 돕는 일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에는 청소년 5개년 계획을 수립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도를 지역별로 평가를 하여 추후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문헌 분석을 통한 개념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도출하여 청소년 전문가 및 청소년들에 의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변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특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 요인으로 구분되고, 이것은 생존, 보호, 관계, 성장이라는 4가지 영역에서 8가지 요인, 총 00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청소년 행복마을 지표 분석결과에 따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행복, 행복마을, 지표개발, 생태학적 관점, 경제적Well-being, 보호, 교육, 성장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은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써 이들의 올바른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 올바르고 전인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국립국어원 2011)”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복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Bronfenbrenner(1979)는 이러한 행복감에 대해 개인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보기 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게 되어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 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Glatzer와 Zapf(1984)에 의하면 이를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객관적 삶의 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좋고 객관적 삶의 여건들이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좋지만 객관적 삶의 여건이 나쁠 경우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나쁘고 객관적 삶의 여건들이 좋으며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모든 조건이 나쁘면 절망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즉,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여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평균 541점 2위, TIMSS 점수에서 수학 597점 2위, 과학 553점 4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등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 청소년들은 단 9.4% 만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 청소년은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독일 26.7%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청소년마저도 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 전연구소에서 최근 실시한 「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초

4~고3)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72.5점으로 OECD 23개국 중 최하위 수준(뉴시스, 201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낮은 행복도를 갖는 이유는 청소년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아이러니하게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에 비례하게 학업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제도는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 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서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성은모, 2013). 결국,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지라도 정작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경쟁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5년 주5일 수업제 부분도입 이후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04년의 4시간 33분에서 2009년에는 4시간 5분으로 오히려 28분 감소되었으며, 주5일제 전면 도입으로 늘어난 토요일 시간은 사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울감을 겪는다는 청소년은 37.4%,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0).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에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가족 해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족 및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소통 및 유대감이 감소하여 자녀에 대한 가족의 보호·지지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손가정은 2000년에 4만5천225가구에서 10년 후인 2010년에는 6만9천175가구로 52.9% 증가했으며, 양육모 대비 미혼모의 비율도 1998년의 7.2%에서 2009년에는 29.5%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이러한 가족구성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백서, 2010).

그리고 경제위기의 여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1989년의 8.6%에서 2010년에는 14.9%로 73.2% 증가했다. 성인기이행의 불안정성 및 지연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높아지는 심리적·현실적 긴장과 압박감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7.7%로 전체실업률 3.4%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대기업 입직 연령은 남자 28.7세, 여자 25.6세에 이르고 있다(리크루트,

2009).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 및 청년의 상대적 임금 하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증대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미래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성장환경 확보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새정부는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13-‘17)’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10. 건전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과 같은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떠한 지표를 중심으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지표를 고려 및 선정하여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 그리고 행복마을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환경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위한 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추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 및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를 위하여 1) 행복/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행복과 삶의 질 요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을 통하여 3)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 4) 청소년 행복의 개념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 및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한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행복과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구성하는 기본 틀인 Bronfenbrenner(1979)의 행복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과 Alderfer(1972)의 생존, 관계, 성장 욕구이론에 근거하여 행복지표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 지표구성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지표를 선정 및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선행 연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지표로써 UNICEF의 아동친화도시지표(Children Friendly City Indicator: CFC)와 아동 Well-Being 지표, UNESCO의 Growing up in the city 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종합·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 및 개발된 지표에 대한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지표 구성의 이론적 틀과 지표를 확정하였다. 선정 및 개발된 지표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의 타당도 평가는 총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수집된 93명(아동·청소년 관련 현직 교수 30명,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 공무원(중앙, 지방 포함) 25명,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19명, 중고등학교 교사 18명)의 의견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일차적으로 선정하는 데 반영하였다. 전문가는 본원 전문가 pool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694명 중에서 본 연구 주제에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로 선정했다. 전문가 선정 시 학계 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지를, 중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우수 교사로 표창받은 경험과 출간한 책의 내용을 고려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구한 후, e-mail로 조사지를 전달하고 회신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청소년 97명(고등학교 남학생: 45명, 여학생 42명)에게 행복 지표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소년 145명(중학교 83명, 고등학교 62명)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구성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이론적 틀과 지표를 개발 및 확정하였다.

II. 행복 및 행복구인에 대한 선행문헌 탐색

1. 행복의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삶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Layard, 2003), 또는 삶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상태 (김신영, 백혜정, 2008) 등과 같이 학자마다 내리는 정의는 다소 다르나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해 만족하여 긍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에 행복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ampbell(1976)에 의하면 행복(삶의 질)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적,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의 영역별 조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삶의 질)을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첫째,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환경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이 객관적인 연구방법에서 사용되었던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환경, 교육, 의료시설 등의 사회여건에 대한 평가 이외에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여건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내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식관계, 직장 및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여가방법은 사회여건 이외에 삶의 질에 있어 또 다른 주요 영역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통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개인들의 다양한 정신심리영역을 행복(삶의 질)의 주요한 지표로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긍심, 능력인지도, 삶의 의미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삶의 질)을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전체적인 안녕감 혹은 행복감이라고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Diener(1984)에 따르면 주관적 연구방법은 어떤 요인들이 행복에 중요한가를 보는 시각에 두 가지의 설명방식이 존재하는데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상향이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와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주관적 안녕 또는 삶의 만족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증가로 좀 더 윤택한 의식주 생활을 누리면서 느끼는 만족감, 결혼생활을 통해 가족과

함께 느끼는 기쁨, 직장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과 사회적 소속감,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 종교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집단적 deorka이 삶에 대해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Campbell(1976)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 결혼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주택, 직장, 지역사회, 종교, 기타 사회활동, 경제수준, 조직체 활동, 정부 등 12영역에서의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국가 간 비교연구들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한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안녕을 보고하고 있다(Diener, 2002).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즐거운 경험들을 증가시킬수록 행복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환경적 여건들이 행복에 중요하다. 따라서 행복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환경적 여건과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양지애, 2010).

하향이론은 객관적인 외부조건에 관한 판단보다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성향을 중시한다. 즉,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동일한 외부상황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성향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외부 조건들 혹은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관적 판단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자긍심, 통제능력과 같은 정신심리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나 삶의 질을 주관적 혹은 심리적 안녕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혹은 안녕감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Diener(2000)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평가’라가 정의한 심리적 구인인 ‘주관적 안녕’은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결과 ‘긍정적 감정(정서)’, ‘부정적 감정(정서)’, ‘삶에 대한 만족’의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한바 있다. 행복의 연구에 있어 주관적 혹은 심리적 안녕감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그것이 독립적인 하위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감 등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Andrews and Withey, 1976; Diener, 1984). 긍정적 감정은 삶의 전체적으로 즐겁고 기쁘지, 부정적 감정은 삶에 있어 걱정, 슬픔 등을 느끼는지와 같은 감정적 요소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의 삶에 일반적으로 만족하는지의 인지적 평가를 말한다.

Ryff(1989)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에는 자긍심, 삶의 의미, 개인적 성장감, 자율성, 환경통제력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을 위의 요소들로 국한하게 될 때 삶의 질을 지나치게 심리적 영역으로만 다루게 되는데, Levine과 Croog(1984)는 삶의 질을 감정적 측면, 인지적 측면, 일반적인 행복감 외에 신체건강의 측면과 사회역할 수행의 측면을 포괄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요소와 만족도 이외에도 신체적인

건강과 다양한 역할수행상의 만족도(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밖에 성취도와 만족감)가 삶의 질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주관적 안녕감보다는 사회적 안녕감(societal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ECD, 1976). 사회의 특정 영역별 요소들을 고려하는 상향이론가들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연구는 Campbell(1976)의 연구와 Flanagan(197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Flanagan(1978)은 삶의 질의 영역을 크게 신체 및 물질적 행복, 타자와의 인간관계, 사회활동, 개인적 성장감, 여가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만족감을 통해 삶의 질 혹은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Evans와 Cope(1989)도 삶의 질의 영역을 물질적 수준, 신체건강,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그 밖의 형제나 기타 가족관계, 친척관계, 직업의 특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스포츠, 여행, 예술 활동, 정치활동, 개인적 성장감 등 15개의 다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연구로 삶의 만족을 물질적 복지, 신체적 복지, 관계, 개인의 발달, 여가 등의 특정 영역으로 구분한 Adelman, Taylor, Nelson(1989) 연구인 청소년용 ‘지각된 삶의 만족도 척도’(Perceived Life Satisfaction Scale; PLSS)가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학교, 친구, 주거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5영역에서의 만족감으로 삶의 질을 파악한 Huebner(1994)의 연구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도 이에 해당한다.

이외도 조명한 외(1994)는 삶의 질을 주관적 관점에서의 인지적 평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주관적 안녕복지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광금주(1995)는 삶의 만족도를 자기만족, 학교만족, 주거환경만족, 친구만족, 가족만족으로 나누었고, 김의철, 박영신(2004)은 삶의 질의 하위영역을 가정생활(화목한 가족관계, 경제적 여유), 학교생활(친구관계, 학업성취), 여가생활(다양한 취미생활, 경제적 여유), 종합(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여가생활)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신현(1996)의 경우는 삶의 질을 주관적 만족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김정연, 정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일상생활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의 주관적 만족도로 규정하고, 개인 성격적 특성(자아 존중감)의 영역, 가정생활의 영역, 학교생활의 영역, 친구관계 영역 등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2.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의 특성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의 특성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자긍심, 삶의 의미,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신현(1996)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가정에서의 만족, 학교생활에서의 만족,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만족,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 등을 묻고 있으며, 개인 심리적 영역에서 자기효능감, 자긍심, 삶의 의미와 개인적 성장감 등을 묻고 있으며, 신체건강에 대한 것도 보았다. 그 밖에 개인의 사회배경의 특성(연령, 성,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결혼가정의 여부)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명한 외(1994)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득,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취업여부, 교육수준, 종교), 사회적 행동 및 생활사건(사회적 활동, 생활사건), 성격적 요인(자기존중감, 정서상태), 신체적 요인(건강) 등으로 구분하였다. 광금주(1995)는 소득, 연령, 성별, 취업여부, 교육수준, 종교, 친구관계, 성격, 신체적 요인, 성적 등이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겪는 생활사건(부모, 형제, 친구의 사망, 부모의 실직 및 이혼 또는 별거, 부모, 형제, 친구와의 다툼, 자신외모의 변화, 전학 등과 같이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보았다. 김의철, 박영신(2004)의 경우는 삶의 질인 각 하위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있는데, 가정생활에서는 화목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학교생활에서는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가, 여가생활에서는 다양한 취미생활과 경제적 여유가, 종합적으로는 자기조절과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와 여가생활이 각 삶의 하위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로 추출되었다.

황옥경, 김영지 (2011)는 델파이 조사와 유니세프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을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함께 참여하는 마을 등 5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개의 세부영역, 총 84개의 평가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II-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세부영역(황옥경, 김영지, 2011)

조성기준	세부영역	지표 수
누구나 건강한 마을	영양·급식, 건강, 정서·행동, 인프라	17개
모두가 안전한 마을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위기·응급상황, 인프라	20개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활동 및 여가프로그램 활동 및 여가시간·공간, 인프라	15개
배움을 누리는 마을	교육기회, 교육연계 진로·직업, 인프라	15개
함께 참여하는 마을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사회참여, 인프라	17개

Huebner(2005)는 인종, 성, 학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SES)라는 인구학적 변인으로 미국 중학교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UNICEF(2006)에서도 청소년기의 행복에는 주관적 행복이나 물질적 행복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또래친구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UNICEF에서는 아동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행동을 설정하고 정리한 바 있다.

표 II-2 UNICEF의 청소년 행복 지표영역 및 구성요소

영역	구성요소
물질적 행복 (Material well-being)	상대적 빈곤, 미취업 가정, 결핍
보건과 안전 (Health and safety)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
교육 (Education)	학업성취, 교육참여, 고용으로의 전환
가족과 친구관계 (Peer and family relationship)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Subjective well-being)	건강, 학교생활, 개인행복
건강관련 행위 (Behavior and risk)	건강행위, 위험행위, 폭력경험

* 출처: UNICEF(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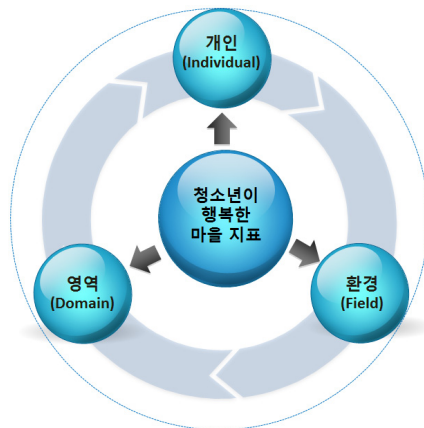
최근 아동발달지표 관련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크게 결과 및 상황적 영역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8개의 세부영역(결과: 신체적 안녕, 인지적·교육적 안녕,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상황: 가족상황, 지역상황, 학교상황, 또래상황)을 중심으로 79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II-3

Mapping of Domains and Indicator of Children's Well-Being

영역		설명	지표 수
결과 영역 (outcome domains)	신체적 안녕	건강상태, 영양, 건강 보호, 신체적 활동, 안전 등이 포함됨.	11개
	인지적 · 교육적 안녕	연령에 맞는 학습능력, 기억력, 적응능력 등을 말함.	9개
	정서적 안녕	아동의 자신 및 미래에 대한 생각 등 정서적 상태	10개
	사회적 안녕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됨.	11개
상황적 영역 (contextual domains)	가족 상황	가족구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됨.	15개
	지역 상황	거주지의 사회적 결집, 신뢰, 사회적 통제, 범죄, 위험, 고립, 차별 정도 등	9개
	학교 상황	아동의 발달, 경험 등에 영향을 주는 학교 환경	7개
	또래 상황	또래와의 관계	7개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의 행복을 제공하는 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그림 1]과 같은 청소년 행복지표의 기본 영역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림 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의 기본 영역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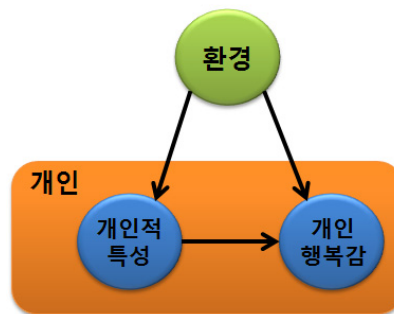
III. 연구결과: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1. 청소년의 행복, 그리고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

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특성(자신,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개인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 문화, 가치, 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Glatzer와 Zapf (1984)가 제시한 ‘행복의 일반적 형성구조’ 역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표 III-1 행복의 일반적 형성 구조 (Glatzer & Zapf, 1984)

객관적 삶의 여건들	주관적 만족감, 안녕감	
	좋은	나쁨
좋은	행복	불협화음
나쁨	적응	결핍



[그림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그렇다면 행복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몸담고 있는 환경적 요인 즉,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가치관, 사회제도와 정책, 법률,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 문화 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체적 맥락 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개체로 보았을 때, 청소년의 행복 또한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적

특성과 이를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의 특성과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system view)(Bronfenbrenner, 1979)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청소년의 행복’을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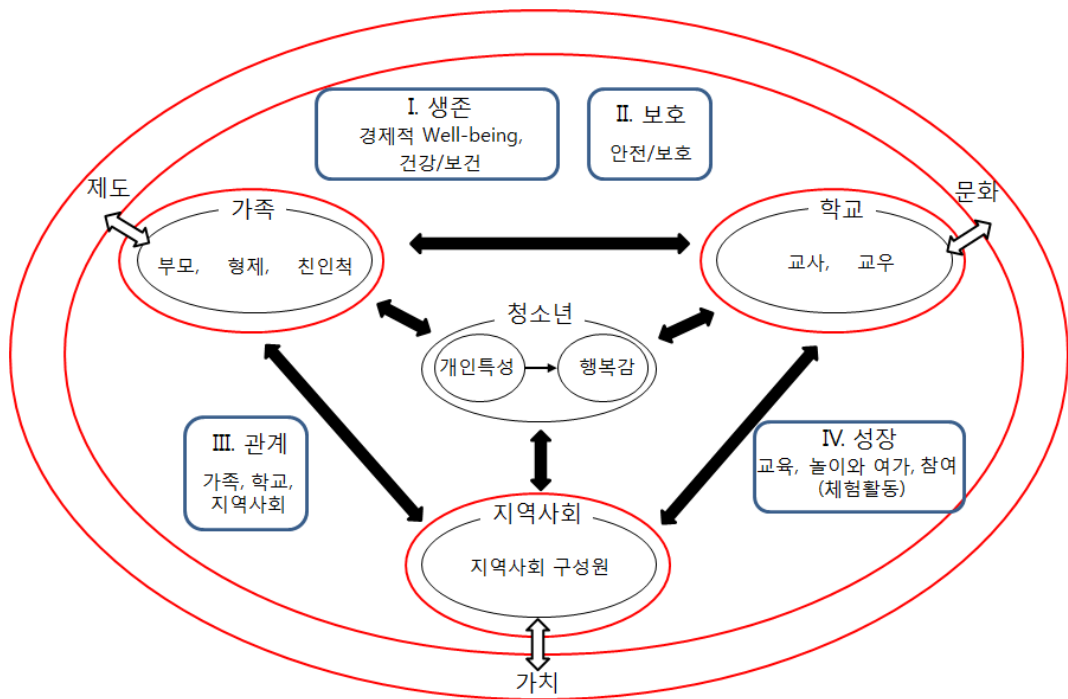
행복이란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소중한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총만한 상태

행복 = $f[\text{개인적 특성} * (\text{외부환경에 대한 인식} + \text{자신의 존재인식} + \text{삶의 의미 인식})]$

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의 개념 및 지표 구성요인

위에서 기술한 ‘청소년의 행복’에 기초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정의한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구성 요인 영역의 선정에는 U.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학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유기체(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의 상호작용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그 결과 행복 지표의 수준역시 미시체계인 개인(유기체)에 해당하는 I 수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중간체계에 해당하는 II 수준, 그리고 제도/문화/가치의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III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구성 체계 및 요인의 이론적 모형

이와 같은 수준 구분을 기초로 각 수준을 채우는 요인들은 UNICEF 아동 친화도시 구성요인을 기반으로 국내의 사회문화적 환경특성에 부합하는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공통적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4가지 영역(생존, 보호, 관계, 성장)을 중심으로 8가지 요인을 추출 했다. 각 요인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I. 생존 영역은 경제적 Well-being, 건강/보건 요인이고, II 보호 영역은 안전/보호 요인, III 관계 영역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IV 성장 영역은 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그리고 제도, 가치, 문화 요인이다. 이들 요인이 각각의 행복지표 수준에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는 아래 표에 기술한 바와 같다.

표 III-2 행복 지표의 수준 및 영역별 요인 구성

생태학적 수준	영역	요인
Ⅰ 수준	I. 생존	경제적 Well-being, 건강/보건
	II. 보호	안전/보호
Ⅱ 수준	III. 관계	관계
Ⅲ 수준	IV. 성장	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제도

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의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국제비교를 위해 유니세프, 유네스코, 유니세프 국가연합의 3개국(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미국, 한국의 총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유니세프 Child Well-being 지표(2007), 미국 CWI (2007), OECD Child Well-being 지표(2009), 그리고 Mapping of Domains and Indicator of Children's Well-Being(2013) 등을 비교해서 공통 항목을 추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지표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Lyubomirsky와 Sheldon(2005)은 개인의 행복감은 유전적 요인이 50%, 개인적 특성이 40%라고 밝혔듯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지표에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제도 환경만을 선정하여 각 환경별로 지표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위해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생태학적 이론은 청소년의 발달·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지표의 구성영역을 상황적 영역(contextual domains) 즉, 가족, 학교, 지역사회, 또래 등이 아닌 주제별 영역(subjective domains) 즉, 건강과 안전, 놀이와 여가, 교육, 가정환경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제별 접근은 향후 추진과제인 시도별 비교·분석을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에서 지표의 구성요소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했다. 즉, 개인의 안녕 수준(신체 발달, 인지 능력, 정서 상태, 사회적 관계 등) 보다는 지역사회 환경(놀이와 여가를 위한 여건, 유해환경, 교통환경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와 항목을 선정했다.

넷째, 인간은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Alderfer, 1972, 김명소, 한영석, 2006, 재인용),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밝혀진 연구결과(김명소, 한영석, 2006)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환경체계에서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환경과 개인의 욕구체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로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만 측정하거나 주관적 만족도만 측정한 연구들도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관점을 수용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4.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는 ‘Ⅰ 수준. 개인특성’, ‘Ⅱ 수준.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 ‘Ⅲ 수준. 제도’ 등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으며, ‘Ⅱ 수준.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은 환경별로 4가지 영역 즉, ① 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② 보호 영역(보호), ③ 관계영역(관계), ④ 성장영역(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에 대한 지표가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지표 초안은 <표 Ⅲ-3>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표 Ⅲ-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의 framework와 영역별 항목 개요

수준	지표 영역 및 내용				지표 수
Ⅰ. 개인	주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 추구			3개
Ⅱ. 가정/ 학교/지역사회	생존 영역	경제적 웰빙	주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자료를 제공 받는지 여부	2개
			객관	한부모 가정 비율, 실업률,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아동 빈곤율, 근로청소년 비율 등	11개
		건강/ 보건	주관	학교 시설(학교의 화장실, 식수대, 급식시설, 냉난방시설)에 대한 만족도, 동네에서 피임기구(콘돔, 피임약 등)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필요시 상담센터에서 각종 질병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등	16개
			객관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 학교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학교 수, 청소년 자살률 등	23개
	보호 영역	주관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을 가하지 않는지 여부,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지 여부 등	20개	

수준	지표 영역 및 내용			지표 수
		객관	최근 1년간 가정 내 안전사고(화재, 가스, 난방기구 등) 발생률, 학교 시설물 관련(건물외벽, 화장실, 가스, 급식시설 등) 사고 발생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수 등	20개
	관계 영역		주관 부모님과과의 관계 만족도,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하루 중 부모, 형제자매와 평균 대화 시간, 일주일간 가족과 식사 횟수 등	18개
	성장 영역	교육	주관 책 보유권수,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등	6개
			객관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여부, 취학률, 도서관 이용률 등	17개
		놀이와 여가	주관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충분도 등	8개
			객관 일주일 간 평균 여가활동 시간, 각종 체육시설 보유 비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 등	18개
		참여	주관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등	14개
			객관 부모 이혼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비율, 학생인권조례 적용 학교 수 등	8개
Ⅲ.제도	객관	청소년 1인당 청소년예산, 청소년담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 수		2개
전체	주관			87
	객관			99

5.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타당화 결과

1) I 수준. 개인특성

개인특성 지표 6개 항목 중 적합도가 전체 평균 3.22점보다 높고, 중요도가 전체 평균 3.21점보다 높은 지표는 총 5개 지표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기타 의견 중 ‘자아탄력성이 낙관성과 자기수용성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자아 존중감, 효능감, 수용성간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지표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 추구를 선정하였다.

표 III-4 개인특성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변수 설명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중요도1)	
① 자아존중감*	주관	3.68	3.66	1.00	O
② 자아탄력성*	주관	3.32	3.25	1.00	O
③ 자기효능감*	주관	3.35	3.28	1.00	X
④ 낙관성*	주관	3.10	3.01	4.00	X
⑤ 자기수용성*	주관	3.33	3.28	1.00	X
⑥ 삶의 목적 추구*	주관	3.59	3.43	1.00	O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2) II 수준.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

(1) 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경제적 웰빙 지표 초안은 총 13개로, 지표 적합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지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각종 문화행사(토요일 프로그램, 캠프 등) 지원 예산’, ‘아동 빈곤율’,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자료를 제공받는지 여부’는 적합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으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이 3점 이상이고 UNICEF CFCI에 포함된 항목으로 추후 국제비교를 위해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하여 포함하기로 하였다.

표 III-5 경제적 웰빙 영역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1)		
가정	①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주관	3.37	3.42	1	3.16	0
	② 한부모 가정 비율	객관	2.82	2.89	4	-	
	③ 실업률	객관	3.07	3.11	4	-	
학교	①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자료를 제공받는지 여부	주관	2.92	2.89	4	3.07	0
	② 무상급식지원 예산	객관	2.96	2.93	4	-	
	③ 방과 후 교육 지원 예산	객관	3.15	3.05	4	-	
	④ 학교지킴이 지원 예산	객관	2.93	2.83	4	-	
	⑤ 각종 문화행사(토요일 프로그램, 캠프 등) 지원 예산	객관	3.35	3.27	1	-	
지역 사회	① 아동 빈곤율	객관	3.45	3.39	1	-	
	②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객관	3.22	3.10	2	-	
	③ 근로청소년 비율	객관	2.99	2.91	4	-	
	④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객관	3.47	3.48	1	-	
	⑤ 총인구대비 청소년 인구 구성비	객관	2.84	2.77	4	-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건강/보건 영역의 가정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 중 적합도와 중요도가 높은 지표인 ‘주관적 건강만족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 ‘각종 약물(마약, 본드, 대마초 등)을 하지 않는지 여부’ 등 7개 항목을 우선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조사 결과 적합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았으나 청소년 조사 결과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된 ‘집 혹은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 가능 여부’, ‘집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와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있는지 여부’ 2문항을 추가로 선정하였고, 지역사회 ①~⑤까지 항목은 UNICEF CFCE에 포함된 항목으로 지표의 중요도 또는 적합도가 낮으나 연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학교 ① ‘학교 시설(학교의 화장실, 식수대, 급식시설, 냉난방시설)에 대한 만족도’ 항목은 식수대, 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학교의 냉난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구분하여 지표화 하였다.

표 III-6 건강/보건 영역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가정	① 주관적 건강만족도	주관	3.25	3.27	1	3.21	0
	②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	주관	3.42	3.45	1	3.54	0
	③ 집 혹은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 가능 여부	주관	2.85	2.82	4	3.24	0
	④ 집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와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있는지 여부	주관	2.90	2.86	4	3.32	0
	⑤ 각종 약물(마약, 본드, 대마초 등)을 하지 않는지 여부	주관	3.23	3.24	1	3.29	0
	⑥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	객관	3.42	3.43	1	—	
	⑦ 주중 평균 수면 시간	객관	3.42	3.47	1	—	
	⑧ 만성질환 유병률	객관	3.09	3.11	4	—	
	⑨ 정상신체충실지수	객관	3.05	3.11	4	—	
	⑩ 일주일간 아침식사 결식 비율	객관	3.12	3.21	4	—	
	⑪ 청소년의 흡연율	객관	3.40	3.42	1	—	
	⑫ 청소년의 음주율	객관	3.36	3.40	1	—	
	⑬ 부모(동거하는 보호자)의 흡연율	주관	2.99	2.92	4	3.06	×
	⑭ 부모(동거하는 보호자)의 음주율	주관	3.07	3.03	4	2.81	×
학교	①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주관	3.39	3.38	1	3.46	0
	② 학교 시설(학교의 화장실, 식수대, 급식시설, 냉난방시설)에 대한 만족도	주관	3.42	3.41	1	3.47	0
	③ 학교에서 건강한 식사습관 기르는 방법과 건강관리 요령을 배우는지 여부	주관	3.09	3.09	4	2.84	×
	④ 학교에서 안전한 성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지 여부	주관	3.29	3.33	1	3.03	0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환경	⑤ 학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지 여부	주관	3.10	3.08	4	2.94	×
	⑥ 학교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한지 여부	주관	3.11	3.05	4	3.28	×
	⑦ 학교에는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한지 여부	주관	2.93	2.86	4	3.13	×
	⑧ 학교 화장실은 깨끗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관	3.26	3.22	1	3.54	0
	⑨ 학교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학교 수	객관	3.08	2.99	4	—	
	⑩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률	객관	3.20	3.16	4	—	
	⑪ 영양 및 건강(신체, 정서)교육 실시횟수	객관	3.11	2.97	4	—	
	⑫ 성교육 실시 횟수	객관	3.07	3.07	4	—	
	⑬ 매체중독관련 교육 실시 횟수	객관	3.03	3.02	4	—	
	⑭ 건강매점 운영 학교 수	객관	2.90	2.97	4	—	
지역 사회	① 동네에서 피임 기구(콘돔, 피임약 등)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주관	2.66	2.74	4	2.37	0
	② 필요시 상담센터에서 에이즈에 관한 정보 및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주관	2.72	2.78	4	2.76	0
	③ 동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한 정도	주관	3.01	3.02	4	3.35	0
	④ 집 근처 공기는 깨끗하며, 담배연기나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	주관	3.18	3.23	3	3.53	0
	⑤ 동네 환경은 깨끗하며 동네에서 놀이를 해도 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	주관	3.20	3.22	3	3.44	0
	⑥ 청소년 자살률	객관	3.72	3.71	1	—	
	⑦ 청소년 사망률	객관	3.28	3.25	1	—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⑧ 건강 검진률	객관	3.24	3.16	2	—	
	⑨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의 수	객관	3.29	3.35	1	—	
	⑩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 이용률	객관	3.21	3.26	3	—	
	⑪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의 수	객관	3.16	3.14	4	—	
	⑫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이용률	객관	3.22	3.17	2	—	
	⑬ 응급의료시설의 수	객관	3.10	3.10	4	—	
	⑭ 응급의료시설 이용률	객관	2.77	2.82	4	—	
	⑮ 학교 주변 안심 먹거리 구역(Green Food Zone)의 수	객관	3.16	3.07	4	—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2) 보호영역

보호 영역의 주관적 지표 중 적합도와 중요도가 높은 지표는 21개이다. 이 중 지역사회 ‘④ 조직폭력이나 갯단으로부터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정도’, ‘⑫ 동네가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은 다른 문항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지표로 채택하지 않았다. 가정 ② ‘가정 내 사고(화재, 가스누출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학교 ⑨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는 UNICEF CFCI에 포함된 항목으로 국제비교를 위해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학교 ⑨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는 지역사회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역사회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표 III-7 보호 영역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 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가정	①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주관	3.57	3.57	1	3.59	○
	② 가정 내 사고(화재, 가스누출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주관	3.26	3.20	2	3.50	○
	③ 집주변이 환경재해(식수오염, 소음, 공기오염, 쓰레기 악취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주관	3.34	3.31	1	3.46	×
	④ 최근 1년간 가정내 안전사고(화재, 가스, 난방기구 등) 발생률	객관	2.95	2.92	4	—	
	⑤ 최근 1년간 집주변 안전사고(화재, 유해가스 등) 발생률	객관	2.99	2.95	4	—	
	⑥ 최근 1년간 집주변 환경재해 사고(식수오염, 소음, 공기오염, 쓰레기 등) 발생률	객관	3.07	3.00	4	—	
	⑦ 불량주택비율	객관	2.90	2.85	4	—	
	⑧ 학대, 방임 발생률	객관	3.67	3.69	1	—	
학교	①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을 가하지 않는지 여부	주관	3.41	3.44	1	3.10	○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 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환경	② 학교 학생들은 피부색, 종교, 문화, 신체적 조건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정도	주관	3.57	3.60	1	3.31	0
	③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도	주관	3.46	3.47	1	3.37	0
	④ 학교에서 게임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할 때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기회를 가지는 정도	주관	3.18	3.16	4	3.29	×
	⑤ 학교 학생들은 종교적 믿음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어도(예: 차도르)차별 받지 않고 모두 존중 받는 정도	주관	2.99	3.06	4	3.04	×
	⑥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	3.45	3.44	1	3.36	0
	⑦ 혼자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	3.57	3.56	1	3.44	0
	⑧ 학교주변 유해환경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	3.56	3.58	1	3.28	0
	⑨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	주관	3.09	3.07	4	3.21	0
	⑩ 학교 시설물 관련(건물외벽, 화장실, 가스, 급식시설 등) 사고 발생률	객관	3.22	3.15	2	—	
	⑪ 학교폭력 발생률	객관	3.82	3.80	1	—	
	⑫ 체벌금지 학교 수	객관	3.05	3.02	4	—	
	⑬ 학교지킴이 운영단 수	객관	3.07	3.01	4	—	
	⑭ CCTV 설치 개수	객관	3.00	2.92	4	—	
지역 사회	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 받거나 구타를 당할 때 동네 이웃 어른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	3.49	3.51	1	3.47	0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 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② 종교,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들로부터 존중 받는 정도	주관	3.42	3.40	1	3.25	○
	③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주관	3.13	3.12	4	2.99	○
	④ 조직폭력이나 갯단으로부터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정도	주관	3.38	3.35	1	3.46	×
	⑤ 동네 나쁜 어른이나 동네 나쁜 형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주관	3.58	3.54	1	3.50	○
	⑥ 혼자 집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주관	3.65	3.63	1	3.51	○
	⑦ 집 밖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	3.46	3.41	1	3.43	○
	⑧ 동네의 도로와 보도, 신호등, 건널목 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주관	3.41	3.40	1	3.34	○
	⑨ 만약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아는 정도	주관	3.47	3.50	1	3.46	○
	⑩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동네 환경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	3.34	3.35	1	3.28	○
	⑪ 동네가 각종 폭력, 범죄(성범죄, 성매매 등)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	3.61	3.59	1	3.60	×
	⑫ 동네가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주관	3.46	3.38	1	3.47	×
	⑬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주관	3.54	3.48	1	3.41	○
	⑭ 동네를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주관	3.63	3.59	1	3.54	○
	⑮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수	객관	2.92	2.79	4	—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 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⑯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객관	2.89	2.78	4	—	
	⑰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	객관	3.28	3.26	1	—	
	⑱ 청소년 성폭행피해 발생률	객관	3.50	3.54	1	—	
	⑲ 청소년 성매매 발생률	객관	3.38	3.41	1	—	
	⑳ 청소년 범죄율	객관	3.51	3.57	1	—	
	㉑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률	객관	3.26	3.21	2	—	
	㉒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 건수	객관	3.11	3.08	4	—	
	㉓ 지역주민의 자율 안전보호망 수	객관	2.98	2.95	4	—	
	㉔ 청소년 모범업소 지정 업체 수	객관	2.78	2.79	4	—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3) 관계 영역

보호 영역의 주관적 지표 중 적합도와 중요도가 높은 지표는 12개로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적합도 또는 중요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청소년 조사 결과 중요도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난 지표 학교 ⑥ 일주일간 교사와 평균 대화 시간, 지역사회 ② 이웃 사람들의 친절도, 지역사회 ④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표로 채택하였다. 학교 ⑨, ⑩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수로 지표의 내용을 다소 수정하였다.

표 III-8 관계 영역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가정	①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주관	3.71	3.71	1	3.62	○
	②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주관	3.66	3.65	1	3.63	○
	③ 하루 중 부모와 평균 대화 시간	주관	3.59	3.60	1	3.15	○
	④ 하루 중 형제자매와 평균 대화 시간	주관	3.23	3.27	1	2.96	○
	⑤ SNS를 통한 가족과의 대화 정도	주관	2.89	2.88	4	2.40	×
	⑥ 일주일간 가족과 식사 횟수	주관	3.33	3.36	1	3.01	○
학교	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주관	3.53	3.52	1	3.38	○
	② 학교에 나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담임 선생님 이외)이 있는지 여부	주관	3.61	3.63	1	3.26	○
	③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	주관	3.43	3.45	1	3.40	○
	④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따돌리지 않고 존중하는 정도	주관	3.60	3.64	1	3.57	○
	⑤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주관	3.54	3.61	1	3.59	○
	⑥ 일주일간 교사와 평균 대화 시간	주관	3.14	3.18	4	3.09	○
	⑦ SNS를 통한 교사와의 대화 정도	주관	2.78	2.78	4	2.44	×
	⑧ 교사와 상담 시간, 횟수	주관	3.05	3.08	4	2.87	×
	⑨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주관	2.97	3.02	4	2.97	○
	⑩ 학교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주관	3.59	3.62	1	3.34	○
	⑪ 일주일 간 친구와 평균 놀이 시간	주관	3.09	3.13	4	3.18	×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⑫ 하루 중 친구와 평균 대화 시간	주관	3.20	3.26	3	3.18	0
	⑬ SNS를 통한 친구와의 대화 정도	주관	3.07	3.03	4	2.96	×
지역 사회	① 친밀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	주관	3.22	3.27	1	2.81	0
	② 이웃 사람들의 친절도	주관	3.08	3.11	4	3.06	0
	③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족의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정도	주관	2.91	2.90	4	2.87	0
	④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주관	3.09	3.14	4	3.09	0
	⑤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주관	2.77	2.83	4	2.85	×
	⑥ 최근 한 달간 이웃과의 (공부방 친구, 교회 친구, 동네 친구, 동네 어른 등) 평균 대화 시간	주관	2.93	2.91	4	2.74	×
	⑦ 이웃과의 모임(공부방, 종교단체, 조기 축구회, 지역사회 동호회 등) 참석 횟수	주관	2.84	2.83	4	2.47	0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4) 성장 영역(교육, 놀이 및 여가, 참여)

교육 영역의 주관적 지표 초안은 총 6개였으며, 이 중 가정 ① 책 보유권수와 가정 ②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가 전문가 조사 결과 적합도 및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연구진의 판단 하에 지표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표 III-9 교육 영역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가정	① 책 보유권수	주관	2.83	2.85	4	2.74	0
	②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	주관	2.96	3.00	4	3.06	0
	③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 여부	객관	2.85	2.79	4	—	
	④ 교육비 지출비율	객관	2.95	2.95	4	—	
학교	①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주관	3.32	3.30	1	3.19	0
	②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주관	3.46	3.48	1	3.28	0
	③ 취학을	객관	3.10	3.10	4	—	
	④ 장애 청소년 취학을	객관	3.13	3.20	4	—	
	⑤ 학업중도 탈락률	객관	3.36	3.45	1	—	
	⑥ 학교급당 학생 수	객관	3.22	3.24	1	—	
	⑦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객관	3.35	3.35	1	—	
	⑧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	객관	3.16	3.12	4	—	
	⑨ 학교 내 상담소 설치 학교 수	객관	3.28	3.25	1	—	
	⑩ 학교 내 도서관 설치 학교 수	객관	3.12	3.04	4	—	
	⑪ 대안학교 수	객관	2.87	2.89	4	—	
지역 사회	①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주관	3.49	3.53	1	3.16	0
	②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	주관	3.52	3.55	1	3.12	0
	③ 도서관 수	객관	3.16	3.20	4	—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④ 도서관 이용률	객관	3.17	3.20	4	—	
	⑤ 지역아동 센터 수	객관	2.96	3.00	4	—	
	⑥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객관	2.95	3.00	4	—	
	⑦ 방과후 아카데미 수	객관	2.97	2.99	4	—	
	⑧ 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객관	2.93	3.00	4	—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놀이 및 여가 영역의 주관적 지표는 전문가 조사 결과 모두 적합도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평균이 3점 이상으로 중요한 지표라고 밝혀졌다. 가정 ② 일주일간 평균 여가활동 시간과 가정 ③ 일주일간 가족과 평균 활동 시간은 중요한 지표이나 관계 영역에서 가족과의 대화시간 등을 묻고 있어 지표로 선정하지 않았다.

표 III-10 놀이 및 여가 영역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가정	①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주관	3.51	3.53	1	3.59	0
	② 일주일 간 평균 여가활동 시간	주관	3.52	3.52	1	3.59	×
	③ 일주일 간 가족과 평균 활동 시간	주관	3.48	3.48	1	3.34	×
	④ 한 달 간 평균 여가지출 비용	객관	2.96	2.96	4	—	
학교	①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의 충분도	주관	3.47	3.51	1	3.49	0
	② 각종 체육시설 보유 비율	객관	3.20	3.25	3	—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③ 교과 외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간	객관	3.38	3.39	1	—	
	④ 주당 체육활동 시간	객관	3.22	3.20	2	—	
	⑤ 체험활동 교육 실시 횟수	객관	3.18	3.14	4	—	
	⑥ 휴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학교 수	객관	3.20	3.15	4	—	
지역 사회	① 동네에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	주관	3.52	3.58	1	3.28	○
	② 동네에서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	주관	3.34	3.37	1	3.49	○
	③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주관	3.45	3.48	1	3.37	○
	④ 동네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공원, 산, 들, 바다, 녹지 공간 등)이 가까운 곳이 있는지 여부	주관	3.36	3.41	1	3.25	○
	⑤ 학교이외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	주관	3.40	3.47	1	3.19	○
	⑥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	객관	3.30	3.30	1	—	
	⑦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객관	3.11	3.11	4	—	
	⑧ 각종 문화활동(연극, 공연, 문화행사 등) 참여율	객관	3.29	3.33	1	—	
	⑨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율	객관	3.23	3.22	1	—	
	⑩ 인구 1인당 녹지, 공원 면적	객관	3.13	3.15	4	—	
	⑪ 도서관 수	객관	3.11	3.18	4	—	
	⑫ 도서관 이용률	객관	3.13	3.15	4	—	
	⑬ 청소년 체육시설 수	객관	3.26	3.26	1	—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⑭ 청소년 체육시설 이용률	객관	3.27	3.29	1	—	
	⑮ 체험관련 프로그램 수	객관	3.03	3.07	4	—	
	⑯ 체험관련 프로그램 이용률	객관	3.12	3.16	4	—	
	⑰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해 공간을 개방한 시설(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수	객관	3.27	3.26	1	—	

참여 영역 지표 중 주관적 지표 총 14개 중 전문가 조사 결과 적합도 및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7문항이고, 나머지 문항들은 적합도 또는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 ②~⑥ 문항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연구진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있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뿐만 아니라 이 문항들을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으로 지표로 채택하였다.

표 III-11 참여 영역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가정	①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주관	3.43	3.51	1	3.31	0
	②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주관	3.53	3.52	1	3.49	0
	③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주관	3.51	3.52	1	3.43	0
	④ 부모이혼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비율	객관	2.95	3.02	4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학교	① 학교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는지 여부	주관	3.30	3.21	2	3.13	0
	②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의사 표명 정도	주관	3.27	3.25	1	3.03	0
	③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주관	3.32	3.27	1	3.10	0
	④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지 여부	주관	3.26	3.27	1	3.16	0
	⑤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허용 여부	주관	3.30	3.33	1	3.31	0
	⑥ 학생 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객관	3.20	3.25	3		
	⑦ 학생인권조례 적용 학교 수	객관	2.96	2.97	4		
지역 사회	①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주관	3.21	3.22	3	3.16	0
	②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주관	3.07	3.08	4	3.04	0
	③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	주관	2.92	2.93	4	3.10	0
	④ 청소년이 시 의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 유무	주관	2.82	2.87	4	3.06	0
	⑤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주관	3.02	3.07	4	3.30	0
	⑥ 우리 동네는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주관	2.98	3.00	4	3.06	0

환경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청소년 조사결과	최종 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중요도 평균	
	교류를 위해 축제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정도						
	⑦ 자원봉사 참여율	객관	3.30	3.26	1		
	⑧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율	객관	3.17	3.22	3		
	⑨ 국제교류활동 참여율	객관	3.02	2.96	4		
	⑩ 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사회 모니터링단 등) 참여율	객관	3.29	3.24	1		
	⑪ 청소년용 정책홍보자료 발행률	객관	2.76	2.76	4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3) III 수준. 제도/가치/문화 영역

제도 영역의 문항은 총 3문항이었다. 적합도와 중요도가 낮은 3번 문항을 제외한 2문항이 채택되었다.

표 III-12 제도 영역 지표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전문가 조사결과			최종지표 채택 여부
		적합도 평균	중요도 평균	적합도 & 중요도	
① 청소년 1인당 청소년예산	객관	3.55	3.57	1	
② 청소년담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수	객관	3.27	3.25	1	
③ 청소년담당 공무원의 평균 청소년담당 근속연수	객관	2.92	2.89	4	×

주 1) 1=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높음, 2= 적합도 높음 & 중요도 낮음
3=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높음, 4= 적합도 낮음 & 중요도 낮음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의 연구의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 및 발전시켜야 청소년의 행복이 증진되어 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추후 다음과 같은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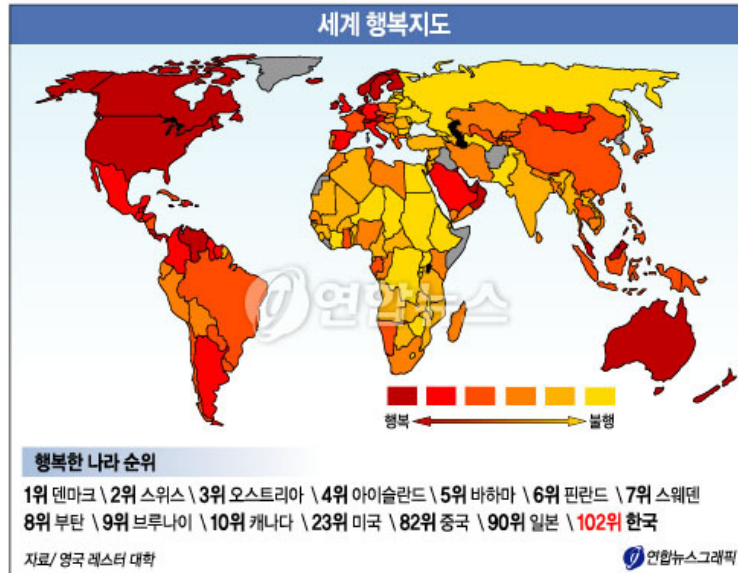
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YHCI)에 따른 지역별 평가결과 제시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YHCI)에 따른 지역별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7개 시도별 청소년의 행복지표에 따른 현황 및 실태를 지역별로 제시하여 지역간 편차를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행정통계 지표에 따른 조사결과는 3단계 혹은 5단계의 level 로 평정하여 17개 시 도의 청소년 행복지표 영역별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한 각 시도별 청소년모니터링단원들의 의견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6개 시도별 청소년 삶의 질 관련 요인별 강점 및 취약점 제시하여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060728 / 반종빈 기자 bjbjin@yna.co.kr

[그림 19] 지표 제시 방법의 예

출처: <http://cfs.tistory.com/attach/1591/1057039890.jpg>

2.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개인과 환경 요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 실시

첫째, 본 연구에서 산출한 YHCI 구성 요인들과 실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복, 심리사회적 적응수준 간의 분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 평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하의 중요 결정변인들을 산출, 향후 정책목표 선정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등 건강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의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1995). KLSSA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 김명소, 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의철, 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9(4), 973-1002.
- 김정연, 정현주(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신미(2012). 청소년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1), 163-194.
-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원.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이명순(2007).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리(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6(4), 193-209.
- 이정미(2011).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생 생활 만족척도(K-MSLSS)의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15-133.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청소년발달지표 조사 Ⅲ.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Ⅱ.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신현(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25호.
- 정연홍(2007). 폐광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석사학위논문.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순중, 현정수(2011).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7(-), 180-207.

- 하정화, 김정란, 이혜주(2010).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I**. 부산: 부산여성가족 개발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2년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 제연구-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승아, 김혜영, 유연규, 상마직자, 조순주, 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옥경, 김영지 (2011). **청소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혜원(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Lee, B. J. (2013). *Mapping domains and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unpublished.
- Lyubomirsky, Sheldon(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http://sonjalyubomirsky.com/wp-content/themes/sonjalyubomirsky/papers/LSS2005.pdf>에서 2013년 5월 30일.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 1321-1343
- UNICEF. *Comprehensive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reporting tool*.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en/research>에서 2013년 2월 21일.
- UNICEF. *The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checklist*.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en/research>에서 2013년 2월 21일.

세미나자료집 13-S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 도전과 과제

인 쇄 2013년 7월 2일

발 행 2013년 7월 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